

## I . 청일전쟁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3. 전쟁의 경과
4. 중재와 강화
5. 전쟁의 영향

## I. 청일전쟁

###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청일전쟁은 청·일 두 나라간에 1894년 7월에 아산 앞 바다 풍도의 해전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의 영토 내에 상륙해있던 청군과 일군이 성환과 아산에서 육전을 연 뒤 전선은 북으로 진행되어 9월에는 평양전투를 거쳐 10월에는 압록강을 넘어 청의 영토로 확대된다. 일본 육군은 육로로 랴오똥(遼東)반도를 가로지르고 해군은 해전과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1895년으로 해가 바뀌는 사이에 랴오똥반도와 산둥(山東)반도의 전략적 요충들을 점령하게 된다.

수도 뻘이징(北京)을 언제나 위협할 수 있는 보어하이(渤海)만과 찌어리(直隸)해협이 일군에게 장악당하자 청은 서둘러 종전을 위한 강화협상에 들어간다. 청국은 전쟁의 초입부터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깊은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게 중재를 요청했으나 전쟁의 목표에 있어 청국과는 차원이 전혀 달랐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예상을 깨뜨리고 승전을 거듭하던 일본으로서는 중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강화를 위한 교섭은 청의 수도가 직접적 위협을 받게되는 1895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4월에 <시모노세키(下關)조약>(청국은 <마꾸안(馬關)條約>으로 부른다)이 전쟁 당사국 대표들에 의해 조인됨으로써 끝났다. 이 과정에 열강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으나 뻘이징과 토오쿄오(東京)에 주재하던 외교관 등 미국인들의 간접적인 간여가 있었다.

이 조약으로 청국이 정치적으로 잃은 것은 조선과의 전통적 종법관계 부정이었고, 영토적으로 잃은 것은 랴오똥반도, 타이완(臺灣), 펑후(澎湖) 및 부속 열도였으며, 경제적으로 잃은 것은 2억 냥[까오평인(庫平銀, 일화로 약 3억

엔)의 배상금과 주로 창쑹(長江) 유역에 위치한 주요 산업지역의 개방이었다. 전통적 화이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아편전쟁 이래 최초로 영토가 상실되었고, 뒤따르는 통상조약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경제력은 중국 경제의 핵심지역으로까지 침투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은 이처럼 1894년 7월 25일에 시작되어 1895년 5월 8일 〈청일강화조약〉이 비준되어 교환됨으로써 막을 내린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이 전쟁은 아홉 달 만에 끝나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이 전쟁을 수행할 戰時大本營을 설치하는 것이 94년 6월 5일, 그리고 군사행동의 종결은 타이완에서의 저항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96년 3월 31일이므로 광의의 전쟁 기간은 근 2년에 가깝다.<sup>1)</sup>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이 청일전쟁에 관련된 기간은 이보다 훨씬 더 길다. 이 전쟁이 일본의 근대사에 있어 1868년에 시작된 명치 시대 45년간 가장 큰 대외전쟁 두 개 중의 하나이자 첫째 전쟁이라는 점, 그리고 이 전쟁은 사실상 1904년~5년의 러일전쟁의 서곡으로 볼 경우 이 전쟁사는 하나의 독립된 전쟁사라기 보다는 두 개의 전쟁사가 일본 근대사상 공시적 의미에서는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싸움터가 중국만이 아닌 조선에서도 치루어 진 점, 그리고 전쟁 강화와 위에서 살펴보았던 강화조약 자체가 열강들의 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때 공간적으로는 이미 청·일 양국의 국경을 훨씬 뛰어 넘게 된다. 따라서 청일전쟁의 역사적 실체를 재구성하고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전쟁사의 범위를 필요한 만큼 확대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건 〈시모노세키조약〉의 제2조에 따라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할양받게 되자 중국의 동북지역과 황해 연안을 따라 이해관계를 축적해 온 러시아·프랑스·독일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 나라는 중국의 영토 중 특히 랴오둥반도의 일본 영토화는 “청국의 수도를 위협하고 동양 평화에 영구적 장

1) 전쟁의 기점과 종점에 관해서는 藤村道生, 《日清戦争前後のアジア政策》(동경: 岩波, 1995), 207~217쪽 참조.

애”가 된다는 이유로 일본에게 반환을 요구했다. 무력 시위도 뒤따랐다. 흔히 ‘대륙세력’으로 불리는 이 3국의 공동간섭에 일본의 군사력과 외교력은 아직은 대응할 수 없었다. 영·미의 ‘해양세력’은 일본과의 공동 대응을 맺을 만큼 긴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무력을 동원할 만큼의 여유나 동기가 없었다.

일본으로서는 향후 10년 뒤에 치르게 될 ‘러일전쟁’은 이 공동간섭 사건의 감성적 또 논리적 귀결일 수 있었다. 두 전쟁 사이의 이 10년 동안에 일본과 영국 사이에 동맹관계가 수립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은 미국의 중재와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에서의 강화조약으로 결말이 나게 된다.

전쟁터가 조선이었을 뿐 아니라 전쟁이 개시된 1894년 7월 풍도 앞 바다에서의 해전이 일본함대가 조선에 증원군을 파견하던 영국 선적의 까우성(高陞)號를 격침시킨 사실, 그리고 승전국 일본에게 예상밖의 전리품인 중국 본토의 영토 분할이 유럽 3국에 의해 좌절된 사실 등은 이 전쟁이 청·일 두 당사국간에 치루어 진 양국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요소가 적지 않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은 이 전쟁의 시기가 아편전쟁의 그것과는 이미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전쟁의 올바른 시각과 해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공시적이자 구조적인 조건이 전제된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0년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 근현대사에서 19세기를 마감하고 20세기로 들어서는 세기 전환기라는 숫자상의 의미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중요성을 갖는 시기이다.

첫째, 유럽세계 중심의 이른바 ‘근대사’가 막을 내리고 말 그대로 ‘세계사’로서의 ‘현대사’가 시작되는 조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1890년대이다.<sup>2)</sup> 여러 조짐 가운데 동아시아 세계에서 특히 두드러진 점은 舊제국주의의 퇴장과 새로운 팽창주의의 등장이다. 아편전쟁 이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집중되던 영국이 주도하던 구제국주의를 대신하여 미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팽창이 동아시아에 도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시베리아로 향한 러시아의 東進과 태평양으로 향한 미국의 西進이 모두 태평양의 서안, 즉 동아시아 세계를 도달점으로 했다는 점은 20세

2) G. 배러클러프 著, 金鳳鎬 譯, 《現代史의 性格》(삼성미술문화재단 문고, 1977) 참조.

기의 동아시아 세계가 아편전쟁 이래 구제국주의의 동진이 주도했던 19세기 후반의 ‘근대 동아시아史’와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세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도 바로 이 시기에 근본적인 변환을 맞게 된다. 우선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이 1890년대에 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크게 전환하였다.<sup>3)</sup> 19세기 중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자기 규정 아래 남·북미 대륙안에서 미국의 독자성을 위주로 하는 ‘먼로주의’로 대표되던 舊 패러다임은 그 활동 범위가 우선 서반구 즉 미 대륙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서반구를 넘어서는 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껏 영국 외교를 편승함으로써 자족하는,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갖추지 못한 소극적 미국외교였다.

19세기 중엽 산업화와 남북전쟁을 거치고 국내가 정돈되던 19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미국은 자신에 대한 定義를 달리하게 된다. 미합중국은 정복과 전쟁, 합병과 매수 등으로 현재의 미국의 판도를 그리면서 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에 걸친 국가로 확실히 형성된다. 1890년대 초에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가 일컬었던 이른바 미국의 역사는 하나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막이 오르는 시대였다.

미국의 이해가 걸리는 세계 각 지역에서의 자주적 행동과 정비되고 전문화된 미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1890년대 말에는 가능한 지역으로의 적극적 팽창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1898년 쿠바·하와이·괌·필리핀을 비롯한 카리브해와 태평양으로 ‘폭발적인 팽창’에 이어, 이듬해에는 이미 구제국주의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권 분할이 이루어진 청국에 대해 ‘문호개방’ 압력을 넣는 등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세계에 새로운 일원으로 등장한 것이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깔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서진과 때를 같이 하여 동진에 나섰다. 한반도에도 깊은 이해관계를 심고 영국과 일진일퇴의 외교 공방을 벌이는가 하면, 1890년대에는 ‘삼국간섭’에서 보이듯 일본과 본격적인 각축·대결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유럽 아시아’로부터 ‘아시아태평양 러시아’에로의 팽창적 변환을 보여주는 일이다.

3) R. Beisner, *From the Old Diplomacy to the New, 1865~1900*(N.Y.: Crowell, 1975)을 참조할 것.

한반도에서 러시아 팽창주의의 등장은 러·일간에 한반도의 남북 분할 점령론이나 만주에서의 각축으로까지 나아간 사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885년 영국의 巨文島 점령 사건은 러시아의 동진에 대한 영국의 견제 조치였다. 1891년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을 개시하자 영국·러시아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1891년 5월 시베리아철도 기공식에 참석하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황태자가 테러를 당한 이른바 오오츠(大津) 사건은 세계적 규모의 영·러의 대립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곧바로 또 하나의 대립관계로 투영되고 있는 사례이다.<sup>4)</sup>

청국이 조선의 ‘방어전쟁’에 나서게 된 데에는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된 일국 대 일국간의 근대국가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었다. 청국은 아직 조선을 屬邦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러한 중법론적 인식은 청국으로 하여금 일본과의 일전을 불가피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事大’를 기축으로 하는 조·청 양국관계란 것은 전통적인 ‘화이질서’라는 국제질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역사 틀에 바탕한 관계였던 것이다. 근대적 국민국가간에 존재하는 국제·외교관계와는 달리, 이를테면 16세기말 임진왜란에 명군의 조선출병 배경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식이 청일전쟁 당시의 조·청 두 나라 사이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서양 제국에 비해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이 1868년 메이지(明治)유신 이래의 군사적 발전과 팽창적 이념으로 무장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왕조 말기적 상황에 빠져 있던 한반도를 침략하고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본격적 해외 팽창의 분기점을 이룬 사건이었다. 건국 초기인 1870년대에 이미 신정부를 뒤흔든 ‘정한론’이라는 조선침략 논쟁은, 논쟁의 본질은 차치하고 당시 일본의 국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중절되었지만, 20년 뒤인 1890년대가 되면 국면은 크게 달라

4) 이 시기 미국·러시아 등 열강들의 동아시아 정책에 관해서는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政策: 특히 1898년 前後의 美·露의 進出을 中心으로》(一潮閣, 1979) 참조.

5) Bonnie Bongwan Oh, “Sino-Japanese Rivalry in Korea, 1876~1885”, in Akira Iriye ed.,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Essays in Political and Cultural Interactions*(Princeton Univ. Press, 1980), pp.35~57 참조.

지게 되었다. 1889년 메이지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의 공포와 이듬해의 국회 개원으로 메이지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건국 이래의 어지러운 정치 항쟁이 헌정질서라는 하나의 테두리 속에 틀이 잡히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불평등조약’ 체제의 수정을 서양제국에 요구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 셈이었다.

일본에게 1890년대란 대외적으로 두 개의 중요한 계기를 가진다. 하나는 이 불평등조약 체제의 종언이며 다른 하나가 바로 청일전쟁에서의 승리이다. 전자가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과의 국제법적인 평등관계의 구현이었다면, 후자는 동아시아 이웃 나라들에 대한 압박국으로서의 등장이었다.<sup>6)</sup> 특히 일본은 이 전쟁으로 명치유신 이래 경제·군사적 근대화 노력의 성과를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의 목표를 근대화와 자립으로부터 본격적 팽창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1890년대는 한국을 포함한 대외관계에서도 전혀 새로운 발상과 정책이 전개된 시기였다.

중국에게도 역시 1890년대는 주체적 역사의 전환을 맞는 시기였다. 아편전쟁이 중국의 자생적 근대화 노력을 재촉한 기폭제였다면 청일전쟁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는 세기말적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이 자신을 근대적 국민국가의 하나라는 인식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화주의에 입각한 화이질서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으로 타격을 받았고 1861년의 總理(各國通商事務)衙門의 설치는 그 제도적 변화의 효시였다.

양무-자강을 과제로 삼은 수십 년의 근대화 노력은 청일전쟁에서 신생 국민국가 일본의 군사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청일전쟁 직전까지의 중국은 국민 국가적 대응의식과 천하관적 현실간의 괴리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베트남(安南) 등 ‘천하’를 구성하는 주변 구성분자들이 하나씩 궤도를 이탈해 나가는 사이에도 이러한 인식과 현실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이 처음 다가왔을 때부터 임오년의 군인 항쟁이나 갑신년의 정변, 그리고 마침내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대등한 공동 간섭권을 인정한 티안쥘조약(天津條約)을 거치면서도 중화제국의 기본구조에 대

6) 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東京: 青木書店, 1968).

한 확신은 결정적으로 도전 받고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sup>7)</sup> 1890년대란 일본의 경우 대내적으로 국력을 정비한 바탕 위에서 對조선 침략정책이 서서히 영글어 가는 시기였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반청 국민혁명운동이 활발히 조직화되어가면서 반청·반만의 전통적 중족주의와 반외세·반왕조적인 근대적 민족주의가 중층적 모순으로 첨예화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청일전쟁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1890년대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영 아편전쟁 이래 반세기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재편된 시기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보다도 먼저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팽창주의 세력화를 그 으뜸가는 새로운 요소로 꼽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쟁 당사국인 청·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열강들의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재편되고 있던 이러한 국제관계의 새로운 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침략국 일본의 경우 그 독자적인 대외 팽창정책의 형성이 자신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신제국주의 특히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 출현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의 전개란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쟁과 전쟁으로 나아가는 도정으로 그 핵심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1941~45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연결선상에서 뿐 아니라 1945년 이후 이 지역의 현대사의 전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sup>8)</sup>

일본으로서는 안으로는 메이지유신 이래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이 일단 완성되는 단계로서의 1890년대, 그리고 밖으로는 새로운 국제환경이 조성되는 1890년대라는 안팎의 이중적 구조가 만나는 시간적 좌표 위에서 청일전쟁의 주역으로서의 일본의 자리를 매김해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왕조말기로서의 19세기말에 공시적으로 일어나는 反滿 민족

7)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인들의 세계 인식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논문으로 戚其章, 〈甲午戰爭と近代中國人の世界認識〉(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上, 東京: ゆまに書房), 287~313쪽 참조.

8) 20세기 전반의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는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1·2(역사비평사, 1995)가 있다.



주의의 대두라는 대내적 조건과 천년의 수명을 누린 화이질서의 종언 그리고 제국주의 교체기에 신·구 제국들의 최종목표로서의 수동적·부정적 주체와 객체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구조적 국면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은 물론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다. 조선은 흔히 이 전쟁의 원인과 구실을 제공한 전쟁터로 설명되는 부차적인 의미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전쟁의 배경과 전개 그리고 결과에 조선의 지도층과 인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문제는 단지 조선 일국의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청일전쟁이 일본과 중국의 19세기 후반 ‘근대화’노력의 성과를 겨루는 전쟁으로 해석되어 왔듯이, 동아시아 나라들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주제는 이 지역 근대사의 해명에 공식적이고도 구조적인 접근에 하나 하나가 모두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쟁에 대한 조선의 주체적 대응과 그 운동 범위를 설정하면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자 논리적인 절차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청일전쟁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에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전제를 두어야 한다. 첫째는,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이미 예상된 무력 침략전쟁이었지만 一國 대 일국간의 전통적인 침략전쟁이라기 보다는 일단 국민국가의 형성에 성공한 일국이 아직도 천하관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던 나라에 대해 감행한 침략전쟁이라는 국면이다.

둘째, 한국의 의지와는 무관하면서도 한국은 전장이 되고 그 운명이 결정된 전쟁이며, 이를테면 1950년 발발의 한국전쟁처럼 후세에 유사한 사례로 인정될 경우, 조선의 국내문제를 구실로 외세가 개입하는 전례를 세웠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 등 구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강요한 타율적인 재래 질서를 일본이라는 새로운 제국주의가 재편성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추이가 당시 동아시아에 이해를 지닌 서양 열강의 예리한 주목의 대상이었고 전쟁의 결말이 서양 제3국들의 ‘간섭’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서양 열강이 주도하는 국제관계란 것이 이전 동아시아에서 어떤 전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중요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이 전쟁이 다분히 ‘현

대사적'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덧붙일 것은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이 전쟁부터 20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연구에는 청·일의 자료뿐 아니라 조선과 영국 미국 러시아 기타 유관국의 자료도 때로는 필수적으로 인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sup>9)</sup>

〈朴英宰〉

##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 1)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19세기 후반 청·일 양국관계는 류큐(琉球), 타이완과 조선을 둘러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긴장관계의 뇌관을 터뜨린 것이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일본이 근대화의 노력과 더불어 청과의 전쟁에 뜻을 두고 청과 대립관계를 생성하면서 조선에서 갈등관계를 일구어 낼 때까지의 사정을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에서 연속되는 국제적 긴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청·일간에 근대적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시점부터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신정부가 수립된 2년 뒤인 1870년 10월 외무성 외무 大丞 야나기와라 사키미츠(柳原前光)를 청국에 특사로 파견하여 청국이 서방국가와 맺은 것과 동등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청의 總理(各國通商事務)衙門은 일본이 이미 상하이(上海)에서 통상활동을 하고 있

9) 최근 중국에서의 이 전쟁에 관련된 중국·조선·일본·영국 등의 公刊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 戚其章 主編, 《中日戰爭》11冊(中國近代史資料叢刊續編, 北京:中華書局, 1989~96)이 있다. 일본이나 영국 자료도 모두 중국어로 번역해 신고있기 때문에 중국사 전공자이거나 일문 자료보다 한문 자료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국사 전공자들에게는 이 자료 총서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총서는 이 글에서 다룬 1차 자료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으나 지난 수십 년 자료를 수집·정리한 필자로서는 수집 당시의 자료로써 인용하기로 한다.

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으며, 또한 청·일 양국은 서양과의 관계와 달라 상호 신뢰가 있는 터이니 새삼스럽게 조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일본 사절은 直隸總督이자 중국의 실권자인 리홍장(李鴻章)을 찾았다. 설득의 초점은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압박하여 통상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서양 열강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권유와 함께 한편으로는 썌쿠오(三口) 통상대신 청린(成林)을 통해서만 만약 청이 끝까지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빌어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리라는 암시도 주었다. 리홍장이 내린 결론은 당시의 중국이 일본과 같은 제3국 그러나 동양 세계의 일원인 일본의 협조를 받을 경우 열강과의 관계에서 해로울 것은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리홍장은 총리아문으로 하여금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다.<sup>1)</sup>

1871년 7월 일본은 조약체결 전권사절로 흙차대신, 전권대신으로 타테 무네나리(伊達宗城), 야나기와라 등을 중국에 파견하여 청국의 전권대신으로 된 리홍장과 수교를 협의하였다. 일본은 청국이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에 준해서 일본과도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물론 청은 거절했다. 당시 청의 당국자들은 아직도 일본은 중국의 주변국이라 생각하고 있었다.<sup>2)</sup>

清廷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조약체결이란 ‘왜구’를 끌어들이는 행위이며 앞으로 후환이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과의 수교가 지니는 이점을 인정하고 있던 리홍장도 일본의 위치가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 영토에 환난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했다.<sup>3)</sup> 결국 청은 조약은 체결하더라도 최혜국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으며, 內地通商이나 양쯔강(揚子江) 운항권 등의 특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또 조약상의 모든 규정은 반드시 쌍무원칙을 지켰다. 1871년 티안진(天津)에서 조인된 〈淸日修好條規〉와 〈通商章程〉은 대체로 청의 의견에 따라 체결되었던 것이다.

1)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東京: 塙書房), 24~32쪽.

2) 이를테면 안후에이(安徽)巡撫 잉한(英翰)은 공공연히 메이치유신 이후의 일본을 조공국의 하나로 말하고 있었다(《籌辦夷務始末》, 同治朝 제77권, 35쪽; 79권, 7쪽).

3) 《李文忠公全書》, 奏稿 제17권, 54쪽.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일본정부는 조약의 비준을 연기한 채 이듬해 1872년 5월 야나기와라를 다시 중국으로 파견하여 조약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들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크게 보아 당시 일본의 조약 일부에서는 타이완·조선·류큐에 대한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메이지정부의 핵심들은 현실적 태도를 고수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약 개정의 요구를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873년 3월에 외무대신 소에지마 타네오미(副島種臣)를 청국에 보내 일단 조약을 비준하였다.

이 조약에 대해서 당시 미국의 주일본 대리공사가 본국 국무성에 보내는 보고에서 이 조약이 중국과 일본의 공동방위동맹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할<sup>4)</sup> 정도로 청국과 서양 열강이 지니고 있던 관계와 청국과 일본이 가지게 될 국제관계의 위상 차이를 드러내 준 조약이었다. 그러나 열강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국제관계에 참여하고자 했던 일본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빗나간 것이었다. 얼마 안 되어 양국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1871년 11월 류큐의 선박 한 척이 해상에서 폭풍으로 표류하다 타이완 동부 해안에 당도, 선상의 류큐인과 타이완의 고산족간에 충돌이 발생하여 다수가 피살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타이완 침공의 계기를 마련한다. 류큐는 1372년(明 洪武 15년)부터 중국과 중번관계에 있었으나 1609년 일본의 사츠마(薩摩)藩이 무력으로 류큐를 정벌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구실로 일본정부는 메이지유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류큐를 병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다. 1872년 10월 일본은 류큐를 일본의 '內藩'으로 선포하고, 외무성이 일체의 대외관계를 관장한다고 선언했다.

1873년 당시 外務卿 소에지마가 1871년에 조인한 수호조약을 비준하러 뻬이징을 방문한 기회에 야나기와라로 하여금 타이완 고산족의 류큐 어민 살해사건을 총리아문에 질의하게 하였다. 총리아문의 대답은 두 섬(타이완과 류큐)은 모두 청국의 영토이며, 領民끼리 살해한 사건은 청정부의 판결사항이

4) Roy Hidemichi, *Japan's Foreign Relations, 1542~1936: A Short History* (Tokyo: Hokuseido Press, 1936), p.69.

며, “우리도 류큐민을 동정하여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귀국의 일처럼 이렇게 번거롭게 문의하느냐”는 반문이었다.

이어서 “살인자가 모두 生番에 속하는 까닭에 모두 문명의 바깥에 있어 철저히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sup>5)</sup>고 덧붙였다. 일본은 중국이 두 지역을 ‘생번’으로 표현한 사실을 꼬투리로 잡고 이는 곧 두 섬이 중국의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 아래 무력 침략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1874년 4월 일본정부는 ‘타이완 사무국’을 설립,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隅重信)를 책임자로 임명하는 동시에 육군 중장 사이고오 츠쿠미치(西郷從道)를 타이완 사무국의 都督으로 임명하여 3,000여 병력을 이끌고 타이완을 침공했다.<sup>6)</sup>

타이완에 대한 이 무력 침공을 일본은 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이미 1873년에 소에지마가 뻘이징에서 청국정부로부터 일본의 타이완 징벌에 대한 동의를 획득했으며, 중국정부 스스로 타이완 동부가 중국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의 타이완 징벌은 중국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단지 ‘생번’에 대한 징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열강은 일본의 타이완 침략을 그들의 이해에 이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의 타이완 침략과 일본을 지원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항의를 표시했다.<sup>7)</sup> 이에 일본은 적당한 선에서 조정이 필요로 했고 1874년 10월 청 조정과 뻘이징에서 화약을 맺게 되어 결국 이 조약을 계기로 청국은 류큐가 일본 영토임을 모호하나마 묵인하게 되었다.

뻘이징조약으로 청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한 이후 일본은 류큐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해서 1875년 5월 류큐 국왕에게 중국에 대해 조공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일본군을 류큐에 파견 주둔시켰다. 같은 해 6월 일본의 메이지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1876년에는 일본의 사법기구와 경찰기구를 설치, 직접통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1877년 주일공사 허루짱(何如璋)은 일

5) 王芸生, 《六十年來中國與日本》 제1권(天津: 大公報社, 1939), 59쪽.

6) 전반적인 사정과 전개에 대해서는 彭澤周, 앞의 책을 참조할 것.

7) 일본의 타이완 침략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趙佳楹 編, 《中國近代外交史, 1840~1919》(太原: 山西聯合出版社, 1994), 304~20쪽을 참조할 것.

본의 국력은 결코 강성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무력으로 시위를 한다면 전쟁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과의 항쟁을 주장했다. 그러나 류큐에 대한 리홍장의 판단은 달랐다. 류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청국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간주했다.

따라서 허루쥡의 주장에 대해 리홍장은 ‘하찮은 일’이라거나 ‘조그만 나라의 자질구레한 조공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은 쓸데없는 일’로 치부하고 이 문제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전쟁과 같은 강경 조치를 취할 이유도 의미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류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sup>8)</sup> 1879년 3월 일본은 류큐를 오키나와(沖繩)縣으로 개칭하고 일본 영토로 공식 편입하게 된다.

한편, 일본정부는 1868년 메이지유신 직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서를 보내고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화를 통고하고자 했다. 새로운 국체의 탄생을 알리면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 인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帝’ ‘勅’ 등 관례에 어긋나는 표현을 들어 국서의 접수를 거절했다. 막부시대의 국서는 대개 ‘타이쿤(大君)’으로 칭하고 있었기에 분명히 구례를 벗어난 것이었다.<sup>9)</sup> 1870년에 일본은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고 접수를 종용했으나 역시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타이완 침략과 그에 따른 교섭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에 대한 압박에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 국내에서의 조선침략논쟁(이른바 세이칸론[征韓論])을 둘러싼 정부 내외의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 일본은 1875년 9월 군함 운요호(雲揚號)를 파견하여 조선에 위협하게 했다.

부산에 기항하거나 동해안을 따라 영흥만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마침내 한강 어구와 강화도 부근의 조선 영해를 침입했다. “조선의 해로 측정을 위한 항행”이라는 구실을 달았으나 이는 엄연한 무력 도발이었다. 강화도 초지진의 조선 포대는 당연히 정당방위 조치로 포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함

8)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제8권, 2~4쪽.

9) 막부 시기와 명치 초년의 조·일관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沈箕載, 《幕末維新 日朝外交史の研究》(京都: 臨川書店, 1997)를 참조할 것.

정은 이에 응하면서 영종도에 상륙하여 관아와 민가에 불을 지르고 38문의 포문 등을 노획하고 나가사키(長崎)로 돌아갔다.<sup>10)</sup>

이듬해 1876년 초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와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6칙의 합정을 이끌고 조선에 재차 무력시위를 벌이고 동시에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중국에 보내어 조선의 개국을 둘러싼 교섭을 돕도록 했다. 총리아문이 <청일수호조규>에 따라 “양국의 예속 영토는 각자의 예에 따라 대하는 것이니 한 치도 침략할 수 없다”고 한 쌍무 규정을 들어 거절했다.

모리는 리홍장에게 조약에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조약은 통상을 위하여 만든 것일 뿐이며, 국가간의 일에 대해서는 국력에 따라 결정될 뿐이므로 “조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sup>11)</sup>고 위협적인 언사로 압박했다.

청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았지만 뽀족한 방도가 없었다. 양무운동을 주도하던 리홍장에게 대외문제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과제였다. 그는 “조선은 빈약하여 일본에 대적할 힘이 없고 게다가 임진왜란때 처럼 청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이에 응할 형편이 못된다”는 이유로 방관자적인 불간섭원칙을 취하게 되었다. 조선과 일본과의 조약체결은 청국의 방관 내지는 묵인 아래 이루어 진 것이었다.<sup>12)</sup>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약>, 이른바 <강화도조약> 제1절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로 시작된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실제에서 이 조약은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조선에서의 영사재판권, 통상항의 개방, 해안의 측량권을 일본이 가지는 것이었다.<sup>13)</sup>

1879년 일본이 류큐를 병탄한 사실을 목격한 청은 일본의 이 행동이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장차 조선에 대한 종주권 문제에도 자의로 행동할 날이 오리라는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sup>14)</sup> 따라서 류큐 병탄 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세력 확장을

10) 白鍾基, 《近代韓日交涉史研究》(正音社, 1977), 102~105쪽 참조.

11)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北京: 文海出版社, 1963), 1-1 附件 2, 2쪽.

12)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朝淸交涉과 東亞三國貿易을 중심으로》(해안, 1999), 317쪽.

13) 이에 대해서는 彭澤周, 앞의 책, 49~81쪽 참조.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조선은 청조의 화이질서를 이루는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선은 청의 발생지인 東三省과 맞붙어 있는 나라로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면 청조의 통치 위신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었다.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의 하나가 사태의 본질을 뒤집어 보는 시각이었다. 1879년 6월 총리아문 대신 덩러창(丁日昌)은 조선이 각국과 화약을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장차 양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화약을 맺은 국가들이 모두 일어나 그 잘못됨을 따져 일본은 지탄을 면하기 어려우리라”<sup>15)</sup>는 논리였다. 이 의견은 곧 조정에 의해 수용되었다. 리홍장은 청국에 와있던 李裕元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이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청의 생각은 열강의 의도와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고 특히 영국은 러시아의 조선 장악이 두려웠고, 러시아 세력을 황해 이북으로 제한하는 것이 남중국에서 영국의 우위를 보증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일찍부터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Thomas Wade)는 조선으로 하여금 각국과 조약관계를 수립하도록 중국에 건의한 바 있다.<sup>16)</sup>

청의 이와 같은 정책을 가장 먼저 이용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880년 해군제독 슈펠트(K. W. Shufeldt)를 파견하여 일본의 알선을 통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조선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허루짱은 총리아문에 건의하여 조선의 외교를 중국이 주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882년 3월 티안진(天津)에서 슈펠트와 담판을 할 때 청은 조선이 자신의 속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노력하였지만 거부당하고, 다만 조선국왕이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조회에서는 조선을 청의 속국이라고 하자는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 그쳤다. 1882년 5월 22일 인천에서 조미조약이 체결되자 청국은

14)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1-33, 附件 1, 32쪽.

15) 위와 같음.

16) 비단 이 사정뿐 아니라 한·청·서양 각국과의 이 시기의 관계에 관해서는 Kim, Key-Hiuk,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0), pp.284~300을 참조할 것.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조선에 대한 간섭정책을 전개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또한 조선에서의 침략활동을 가속화한다.<sup>17)</sup>

이때 조선 통치계급 내부의 갈등은 일본이 조선에 발붙이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대립의 확대가 그것이다.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청국은 티안쩐의 道臺 마찌엔쥡(馬建忠)과 수사제독 땡루창(丁汝昌)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사토록 하고, 다시 우장칭(吳長慶)에게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가서 대원군을 체포하여 청에 압송하도록 하고, 한편 으로는 난을 일으킨 병사와 민중을 진압하게 했다. 청국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첫째 목적은 사태의 확대를 막음으로써 일본이 간섭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임오군란을 이용하여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에게 병력을 이끌고 조선으로 가서 제3자의 조정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국의 종주적 지위를 부정하고자 했다. 1882년 8월 30일 일본은 조선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수도에 병력을 주둔시킬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공사 타케조에 신이치로오(竹添進一郎)는 임오군란의 손해배상액 가운데 상환하지 않은 40만 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조선의 독립을 권유한다.

청국 또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서 자국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다. 군란이 평정된 뒤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외교와 군사업무를 관장하고자 했다. 상무위원을 파견하거나, 조선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oellendorff)와 마찌엔창(馬建常)을 조선의 세관업무에 참여시키도록 추천한 것이 좋은 실례이다.

일본은 청이 마침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조선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틈을 타 개화파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켜 그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 프랑스도 일본이 조선에서 진일보한 침략활동을 전개하여 중국을 견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용했다.

17) 청·한 그리고 영·미관계에 대해서는 陳偉芳 著, 權赫秀 譯, 《清·日甲午戰爭과 朝鮮》(백산자료원, 1966), 45~68쪽 참조.

1884년 12월 4일, 조선의 개화파는 郵政局청사 낙성식을 기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왕을 일본군이 호위하도록 했다. 조선주재 防營 營務處會辦의 직위에 있던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이 소식을 듣자 병력을 이끌고 궁궐로 들어가 일본군을 격퇴했다. 이 사건이 끝나고 일본은 외상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를 직접 파견하여 조선이 독립국임을 강조하고 청국을 배제한 조선과의 담판을 진행하게 된다.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청의 기본적인 태도는 청국과 일본 사이에 오해로 말미암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단서를 미리 막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교섭에서 일본측의 책임을 추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찍부터 조선에서의 철군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티안쥘에서 열린 담판에서 일본이 노렸던 목표는 중국의 조선에서의 철군이었으나 리홍장은 일본이 철수하면 중국도 철군하겠다고 주장, 결국 양국은 조선에서 변란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병이 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sup>18)</sup>

이처럼 조선은 1882년~1886년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영국은 조선에 러시아가 남중국 연해로 확장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로 삼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에서 청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 부동항을 얻고자 했던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선이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인 영국이나 일본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일본과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하려 하였고, 일본은 조선을 장차 대륙 팽창의 교두보로 굳힐 생각을 하고 있었다.

1885년 4월 영국의 극동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하고 일시 조차한다고 선언했을 때 이 같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반응이 명확히 나타난다. 리홍장은 영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일본을 방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국의 이번 점거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선과 중국 모두에게 아무런 손해

18) 이 시기의 전반적인 청·일·한의 관계에 관해서는 白鍾基, 앞의 책, 172~210쪽 참조.

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국공사 오코너(Nicholas R. O'Connor)에게 거문도의 일시 점령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sup>19)</sup> 주영공사 쟁찌찌(曾紀澤)는 영국은 거문도에 대한 세금을 조선정부에 납부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 공로로 영국정부로 하여금 조선을 중국의 ‘속방’으로 승인받고자 하였다.<sup>20)</sup>

그러나 영국은 이내 거문도에 거액을 투자하여 군사적인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청정을 통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구두 보증을 받아 내고서는 1887년 2월 거문도에서 철수하게 된다.

러시아는 조선세관 총세무사였던 독일인 뮐렌도르프와 합작하여 국왕을 러시아가 보호하도록 하고, 주일 참사관 드 스페이에르(Alexei Nikolaevich de Speyer, 士貝耶)를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정부를 압박하여 군사교관을 러시아인으로 두게 하는 등 입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조선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보다 한발 앞서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를 느끼게 했다. 이에 따라 청과의 협조관계부터 열게 된다. 1885년 7월 일본공사 에노토모 다케아키(榎本武揚)는 티안전에서 리홍장을 접견하고 조선의 외무업무에 관한 여덟 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 핵심은 청정부가 조선의 인사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청국은 청국대로 조선에서 러시아의 활동에 대응해 먼저 군사력을 정비하여 러시아를 막는 일이 우선한다는 판단 아래 일본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sup>21)</sup> 따라서 청정은 일본의 건의를 받아들여 1885년 9월 대원군을 석방하여 귀국토록 하였으며, 11월에는 위안스카이를 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1885년부터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까지 10년간은 청이 조선에서 리홍장의 지지하에 위안스카이를 통해 소위 ‘監國’정책을 실시한 시기였다. 청은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려 하였으며, 조선이 독자적으로 유럽이

19) 《李文忠公全書》，電稿 제5권, 30쪽.

20) 《李文忠公全書》，譯署函稿 제17권, 12쪽.

21) 《李文忠公全書》，海軍函稿 제2권, 9쪽.

나 미국과 사절을 교환하는 일도 방해하고 사전에 청국의 인준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경제부문에서도 통제를 강화하여 조선의 육상 전선선을 중국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부설한 해저 전선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차관까지 저지시켰다. 또 인천·원산·부산 등 세 항구를 통한 수출을 증가시켜 조선에서 일본의 수출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갔다.<sup>22)</sup>

일본은 이 시기에 두 가지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 있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의 역량을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86년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중국이 “현재 외부적으로는 수륙 각 군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헛소리다. 지금은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한 후라 마치 활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1~2년 지나 다시 일상적인 국면으로 접어들면 서양인들의 언급대로 다시 잠들 것이 분명하다”<sup>23)</sup>고 당시 중국의 힘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 2) 일본의 전쟁 준비와 갑오농민전쟁

일본의 전쟁준비는 민·관 양쪽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참모본부와 ‘대륙낭인’을 중심으로 하는 팽창주의 지향의 민간단체들이었다.

1878년 참모국에서 확대 개편된 참모본부는 1879년 독일에서 갓 돌아온 카츠라 타로오(桂太郎) 중좌를 管西局長으로 앉히면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서 작전 방안을 작성하는 한편 십여 명의 장교를 중국 현지로 파견하여 스파이로서 중국의 군사지리나 군비 현황 등을 조사·연구시켰다.<sup>24)</sup> 1880년에는 시베리아 등지로도 참모본부 요원을 파견했는데, 그러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支那地誌》·《隣邦兵備略》 등의 군사지리

22) 조선을 둘러싼 청의 무역과 대일 견제 사정에 대하여는 김종원, 앞의 책, 291~350쪽 참조.

23)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10, 第452件 附件 2, 2쪽.

24) 佐伯有清,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東京: 吉川弘文館, 1976), 6쪽.

서와 작전지침을 편찬한 것이 바로 참모본부 편찬과였다.

청일전쟁의 개전 준비과정에서 이 편찬과를 중심으로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학술적인 작업이 진행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참모본부 편찬과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광개토왕비문의 존재를 알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비문의 내용과 탁본을 습득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청국에 파견된 장교로 뻬이징에서 중국어를 습득하고 중국인 의사로 변장하여 만주 일대를 조사했던 사코오 카케아키(酒勾景信) 중위가 1883년 광개토대왕비문의 墨本을 입수했다. 편찬과는 그 전인 1882년에 《任那考稿》라는 고대 한일관계사에 관한 연구서를 발간한 적도 있다.<sup>25)</sup> 사카와가 입수한 묵본은 1888년 메이지 천황에게 헌상되어 1890년에 제국박물관(현재의 토오쿄오국립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되었고, 참모본부는 일본 근대역사학의 개척자인 쿠메 쿨니타케(久米邦武) 등 대표적 역사학자와 한학자들을 동원하여 비문 해독작업을 추진했다.

광개토왕비문을 고대 일본이 ‘남선을 경영(南鮮經營)’했던 증거로써 해석한 연구는 亞細亞協會가 1889년 발간한 잡지 《會餘錄》 제5집에 〈高句麗古碑釋文〉이라는 글로 처음 공포되었다. 이 시점이 참모본부가 조선 침략을 위한 청국 작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sup>26)</sup>

전쟁에 대비한 정부의 이러한 빈틈없는 전쟁 대책의 수립과 병행하여 민간의 대륙 팽창주의자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상하이(上海)의 樂善堂을 근거지로 암약하던 이른바 ‘大陸浪人’들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륙낭인의 대표적 인물인 아라오 세이

25) 李進熙 著, 李基東 譯, 《廣開土王陵碑의 探究》(一潮閣, 1982), 17쪽.

26) 《최근의 이집트》는 잘 알려진 대로 영국의 크로머(Evelyn B. Cromer)가 지은 《근대 이집트(Modern Egypt)》(N.Y. : Macmillan, 1908)를 번역한 책으로서 한국병합 직후인 1911년에 대일본문명협회에서 간행되었다. 《회여록》의 논문과 아세아협회의 관계는 마치 이후 한국을 병탄할 때 나타나는 《최근의 이집트(最近埃及)》와 대일본문명협회의 관계와 유사하다. 협회 회장이던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의 원본을 당시의 한국 통감 이토오 히로부미에게 헌정한 바 있는데, 그것은 영국의 이집트 지배정책이 한국에서의 ‘보호정치’에 참고가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였다고 털어놓고 있다.

(荒尾精)나 네즈 히토시(根津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참모본부에 소속된 첩보무관으로 1886년부터 낙선당을 거점으로 행상을 하면서 남부 중국의 지형 탐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sup>27)</sup>

이들은 좀더 체계적인 첩보활동을 위해 1890년 상하이에 일청무역연구소<sup>28)</sup>를 설립하고 낭인들을 교육시켜 배출했고, 바로 이들이 청일전쟁 때 통역과 정보 수집원으로 활약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9)</sup> 이들 대륙낭인 가운데 특히 일본의 조선 침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玄洋社와 天祐俠라는 재야 민간 단체였다.

큐우슈우(九州)·후쿠오카(福岡)지역의 낭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겐요샤는 토야마 미츠루(頭山滿)를 지도자로 하여 대륙정책에 적극적으로 간여했다. 청일 개전 전에 金玉均이 상하이에서 암살 당했을 때에는 겐요오샤 社員 마토노 한스케(的野半介)가 외상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와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오로쿠(川上操六)를 찾아가 청국 응징과 청일 개전을 역설했던 적이 있다. 또 청일 양국군의 조선 파병 뒤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아산만으로 청년 사원들을 보내 전쟁도발을 획책하기도 했다.<sup>30)</sup>

또 겐요샤의 우치다 료오헤이(内田良平)를 포함한 소수의 ‘조선 낭인’들은 별도로 텐유교라는 조직을 만들어, <全州和約>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농민군을 선동하려 했으며 전쟁 발발 이후로는 통역과 스파이 역할을 하면서 종군했다.<sup>31)</sup> 이들 낭인 세력은 일본의 조선침략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민간 침략 도구로서 자발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쫓겨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의 지방 관

27) 이들의 공작과 활동에 관한 상세한 그림은 李文海·康沛竹, <甲午戰爭与日本間諜>(楊念群 主編, <甲午百年祭: 多元視野下的中日戰爭>, 北京: 知識出版社, 1995), 18~38쪽을 참조할 것.

28) 이 연구소는 1901년 東亞同文書院으로 이어지게 된다.

29) 이에 관련된 인물들을 일본의 우익적 시각으로 정리한 참고서는 栗田尚彌, <上海 東亞同文書院>(東京: 新人物往來社, 1993)이 있다.

30) 상세한 기술은 趙恒來, <日本國粹主義團體의 一研究: 玄洋社를 中心으로>(歷史學會 編, <日本の 侵略政策史研究>, 一潮閣, 1984) 참조.

31) 姜昌一, <天祐俠と‘朝鮮問題’: ‘朝鮮浪人’の東學農民戰爭への對應と關連して> (《史學雜誌》97~8, 1988) 참조.

청을 습격하며 5월에 접어들면서 그 세력을 급속히 확대시켰다. 조선정부는 당초 이 농민혁명을 종래의 民亂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농민 봉기의 원인을 지방관의 불법적 수탈 탓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라도 병마사 겸 壯衛營 正領官인 洪啓薰을 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현지로 파견한 직후의 대신회의에서 지방관의 엄격한 선발을 농민 봉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강조한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좌의정 趙秉世처럼 문제의 근원을 ‘弊政’ 일반에 두는 주장은 오히려 예외적이었다.<sup>32)</sup>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京軍을 내려보냈으나, 전라도 관찰사의 허위 보고와 달리 해산하지 않고 있던 농민군은 황토현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조선정부는 홍계훈의 증원군 요청에 따라 5월 19일 壯衛兵 300명과 沁營兵 500명을 증원하여 진압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농민군의 표적이었던 전라도 관찰사 金文鉉, 按察使 李容泰, 고부 군수 趙秉甲 등의 처벌과 고종의 칙유에 의한 폐정 시정 약속을 통해서 농민군의 해산을 회유하고자 했다. 재래의 민란 대책이라면 상당한 수준의 대책이었을 터였다.

그러나 농민군에 대한 조선정부의 진압 태세도 몹시 취약했다. 종래의 민란과는 판판으로 농민군은 규율, 조직력과 전투력이 뛰어났고 민중의 유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정부군은 재정의 피폐로 인한 사기 부진, 그리고 중앙군과 지방군 사이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규율과 전투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황토현전투에서 여실히 입증되었고 5월 27일의 長城전투에서도 되풀이되었다. 결국 농민군은 정부군의 방어망을 뚫고 5월 31일에 全州를 함락시키기에 이른다.

홍계훈은 황토현전투에서 패배한 직후인 5월 14일경부터 증원군 요청과 동시에 청국군의 ‘借兵’ 방안을 정부에 제기하고 있었다. 요원의 불길처럼 확대되는 농민혁명을 자력으로 진압하고 수습할 능력이 정부군에게 없음을 잘 알고 있던 홍계훈으로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선례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진압병력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는 장성전투를 며칠 앞둔 23일에도 농민군을 진압할 방도는 “바깥으로

32) 《日省錄》, 고종 31년 4월 4일.

부터 병력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지금의 정세를 보면 우리의 숫자는 적고 저들은 많아 군대를 나누어 추격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바라옵건대 외국의 군대를 빌어 [토벌군을] 돕는다면 저들로 하여금 꼬리와 머리를 잊지 못하게 하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즉, 저들은 반드시 세가 외로와 흩어질 것이오 힘이 다하여 무너질 것입니다”<sup>33)</sup> 라고 하는 청원이었다.

청국군 차병문제는 1893년 동학의 보은 집회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었다. 당시 영의정 沈舜澤이 동학 집회를 진압하는 데 중앙군까지 투입하자는 안을 제기한 데 대해, 고종은 중앙군을 수도 방위에 전념시키고 집회의 진압은 청국군에게 맡기자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고종은 청국이 태평천국운동(1851~1864)을 진압할 때 영국군을 ‘빌렸던’(借兵) 사례를 상기했을 것이다.<sup>34)</sup> 이때의 차병론은 결국 군량미 조달의 재정적 문제점을 든 심순택과 우의정 鄭範朝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반대파 역시 청국의 병력 도입은 타국에 대한 과병 요청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즉 당시 조선정부는 전통적인 ‘屬邦’ 체제에 가탁한 중국의 근대적 식민지배 시도를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5)</sup>

이러한 경위를 지닌 청국군 차병문제가 홍계훈의 요청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었다. 첫째는 조병세처럼 민중의 바람에 부응하여 폐정을 크게 개혁하자는 내정개혁 방안이었고, 둘째는 閔泳駿처럼 청병을 빌리자는 군사적 진압 방안이었다.<sup>36)</sup>

전자는 결국 국정을 장악하고 있던 민씨 척족의 축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곤란했지만 후자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5월 16일 민영준은 “賊勢가 갈수록 더 창궐하여 剿滅할 수가

3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下(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274쪽.

34) 《日省錄》, 고종 30년 3월 25일.

35) 具仙姬, 《韓國近代 對清政策史 研究》제4장 淸日戰爭과 朝·淸關係(혜안, 1999), 220쪽.

36)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7-2(東京: 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152~153쪽.



없습니다. 招討使로부터 청병이 와 도와주기를 요구하는 전신이 도착했는데 아마도 [지금의] 사정에 합당하다”고 고종에게 상주하고 있었다.<sup>37)</sup>

이리하여 청군 차병문제는 5월 18일의 대신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세 가지 이유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하나는 나라의 근본이 백성인데 외국군에 의해 수많은 생명, 즉 농민군이 절멸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국내로 진입한 외국 군대의 통과지역에 막대한 폐단이 생겨 민심을 동요시키리라는 점이었다. 셋째는 외국군의 입국을 기화로 일본과 서구 열강이 공관 혹은 거류민 보호를 구실 삼아 군대를 파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차병 요청을 둘러싼 논의는 부결되었다.<sup>38)</sup> 전반적으로 농민군의 무력 진압보다는 내정개혁을 매개로 한 해결 방식을 모색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로부터 정치적 후원을 받고 있던 민영준은 청군 차병에 대해 별도로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5월 26일경 위안스카이는 민영준을 방문해 농민군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면서 자신에게 병력을 주면 5일 내에 평정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농민군이 전주를 함락한 5월 31일, 민영준은 위안스카이를 방문하여 원군의 파병을 논의했다.

위안스카이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종에게 설득한 요지는, 자신이 스스로 고종의 뜻대로 현지로 내려가 조선 병력을 지휘할 것이며 수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 군대가 진입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 휘하의 군을 진입시키지 않으리라는 약속 등이었다. 더 이상 뽀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종은 내키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sup>39)</sup>

앞서 위안스카이의 보고에 근거해서 찌어리총독·빼이양대신(北洋大臣) 리홍장이 5월 25일 빼이징에 알린 사항은, 조선 국왕으로부터 정식 파병 요청은 아직 없으며, 일본의 파병 움직임도 없지만 청군의 파병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40)</sup> 6월 1일 총리아문에 대한 리홍장의 보고에 따르

37) 《日本外交文書》27-2, 153쪽.

38) 《日本外交文書》27-2, 153~154·156쪽.

39) 고종의 청군 파병 자진 요청의 허구성에 관해서는 이태진, 〈1894년 6월 淸軍 朝鮮 출병 결정 과정의 真相—조선정부 자진 요청설 비판〉(《韓國文化》24, 1999. 12)을 참조할 것[〈1894년 6월 淸軍出兵 과정의 진상—자진 請兵說 비판〉,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00), 191~228쪽에도 수록].

면 “(조선국)왕은 병력이 부족하여 (진압군을) 더 이상 늘려 파견할 수 없고 또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중국이 군대를 파견해 대신 토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하며 파병 준비를 하면서 조선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sup>41)</sup>

한편 일본의 조선 주재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는 조선문제를 기회로 중국의 출병을 충돌시킬하고자 했다. 그는 위안스카이에게 일본은 중국이 “조선의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일본정부는 “다른 뜻이 없다”고 밝히며 중국의 출병을 중용했다. 이에 위안스카이는 일본이 “商民을 중시 여길 뿐 별다른 뜻이 없는 것 같다”<sup>42)</sup>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일 공사 왕펑짜오(汪鳳藻)도 청정에 일본은 국내 권력 투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다고 보고했다. 일본에 대한 청국의 정보는 토오쿄오 주재 청국 공사 왕펑짜오를 통해서 형성된 부분도 적지 않았는데, 그는 일본이 내정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다른 나라에 대하여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리홍장은 그러한 보고를 그대로 믿었던 것이다.<sup>43)</sup>

청군의 파견에는 위안스카이의 개인적 오판도 작용하였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에 청병하면 5일 이내 비도를 진압할 수 있다”<sup>44)</sup>는 등 호언장담을 서슴치 않았다. 리홍장은 위안스카이와 왕펑짜오의 보고를 근거로 조선정부의 구원 요청이 오는 즉시 조선에 파병을 결정하고 6월 7일 〈天津條約〉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 통보했다. 6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청군 2,000여 명이 아산만에 도착했다.<sup>45)</sup>

일본정부는 1894년 6월 2일 조선 주재 공사관의 보고를 통해 조선정부가 이미 중국에 청병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의에서 공사관과 교민

40)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13, 942쪽.

41) 蔡爾康·林樂知 編, 藤野房次郎 譯, 《中東戰記本末》(東京: 博文社, 1898), 135쪽.

42)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13, 제945·949件, 7~8쪽.

43) 리홍장 등 청의 오판에 관해서는 陳偉芳, 앞의 책, 162~70쪽 참조.

44) 《日本外交文書》 27-2, 문서번호 501, 155~156쪽.

45)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2, 547쪽.

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출병할 것을 결의했다. 수상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외상 무츠는 일본은 “되도록이면 피동자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언제나 청이 주동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점과, “사태를 일·청 두 나라에만 국한시켜 제3국과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선제공격을 하기로 따로 결정해 놓고 있었다.<sup>46)</sup>

일본은 일차로 약 7~8천 명의 대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가지고 6월 5일 大本營을 설치하여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았다.<sup>47)</sup> 또한 군사적으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청군의 출병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로 돌아오는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군 3~4백 명을 오오토리와 함께 먼저 파병하여 6월 10일 그들을 서울에 주둔시켜 놓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파병을 늘려 16일이 되면 약 4,500명이 증파되고, 이 병력만으로도 청군의 두 배를 이미 넘고 있었다.

군사적 배치를 완료한 일본은 외교적으로 도발의 구실을 찾고자 했다. 1894년 6월 7일 중국측에 일본도 〈제물포조약〉 제5조에 따라서 파병을 준비하고 있음을 통보했다. 이때 청정이 보낸 조회문 중에 소위 “속방을 보호한다”는 규정에 대해 항의를 표시,<sup>48)</sup> 도발의 외교적 구실을 찾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한편 사태가 예상 밖으로 비화하자 조선정부는 위안스카이에게 “이미 적이 홀어졌으므로 청국군도 조속히 철군해 줄 것”을 요청하는<sup>49)</sup> 한편 일본 공사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다.<sup>50)</sup> 오오토리가 병력을 이끌고 서울에 진주한 뒤 동학농민군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외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시작한다. 농민군에게 가장 충격을 준 소식은 일본군이 궁궐

46) 陸奥宗光, 《蹇蹇錄》(岩波書店, 1940), 36쪽 및 54~55쪽.

47) 대본영의 히로시마 설치와 천황권의 군사적 성격에 관해서는 檜山幸夫 <日清戦争と日本>(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戦争と東アジアの變容》上, 東京: ゆまに書房), 375~383쪽 참조할 것.

48) 《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519, 169쪽.

49)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2, 990件, 556~557쪽.

50)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 377~381쪽.

을 침범했다는 사실이었다.

전봉준이 이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전주화약이 성립된 후 남하 도중 소주에서였다.<sup>51)</sup> 그러나 이때는 이미 화약이 성립된 이후여서 거병을 재론할 계제가 되지 못했다. 대원군은 그가 경사로 진격하여 함께 천하를 도모할 것을 암시한다.<sup>52)</sup> 그러나 전봉준의 지병 악화와 추수기라는 시기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농민군과 군량 동원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농민군은 일본군과의 항전을 결정하고 공주를 그 결전지로 삼았다. 10월 22일부터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나 농민군은 무장의 열세로 계속 패배하여 1~2차 공격을 마친 후 1만 명의 농민군 중 3천명이 남았으며, 3~4차의 공격을 마쳤을 때 혁명군은 불과 5백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sup>53)</sup> 농민군 세력이 급격히 줄어들자 일본군의 서울 진입은 국제적으로 의심을 사게 될 수밖에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일본은 외교적으로 피동적인 위치를 고수하려던 태도를 버리고 조선정부에 건의하여 일본군으로 하여금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일본군이 계속 진주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였다.

일본은 중국에 도발하기 위한 구실로써 두 가지 방략을 고려하고 있었으니, 하나는 중국과 조선간의 종속문제를 따지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선의 내정개혁 문제였다. 조선 주재 일본 공사 오오토리는 이 시점에서는 후자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28일 조선정부에 대해 6월 7일 청국이 일본에 보낸 조회문 중에 소위 ‘속방 보호’라는 주장에 관련해서 조선정부가 이에 동의하는지를 따지면서 하루 이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난처한 질문에 봉착한 조선정부는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존중하며, 중국에 원조를 청한 것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중국의 종주권 문제는 이미 진부한 주제로서 전쟁 도발의 계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내정개혁

51) 〈全瑋準供草〉四草.

52) 《東學亂記錄》下, 583~584쪽.

53) 〈全瑋準供草〉初招.

을 도발의 구실로 삼는 것이 제3국의 동조를 얻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7월 3일 일본은 조선에 대해 개혁방안 5개조를 제시했다.<sup>54)</sup> 중앙과 지방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다룬 것이었다. 일본은 대원군을 끌어들이고 조선 병사들의 무장 해제부터 착수하여 7월 25일에 이를 완료하였다.

7월 24일부터 시작된 ‘개혁’은 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金弘集을 총재로 앉혔다. 관장할 수 있는 업무를 ① 서울 이외의 모든 관청의 직제를 개정하며, ② 행정과 사법 일체의 규칙을 새로 제정하며, ③ 토지·물품세와 재정 일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④ 학사 정책을 수립하고, ⑤ 군사 정책을 수립하고, ⑥ 식산 흥업과 상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sup>55)</sup>

새로운 관제가 제정됨에 따라 8월에는 영의정 김홍집을 비롯한 대신들이 임명되고 각 아문들도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일본 주도의 내정개혁이란 조선을 청으로부터 분리시켜 일본 침략의 발판을 만들자는 것과 친청파이자 수구 세력인 민씨 일파를 제거하는 데에 그 궁극적 목표가 있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조선정부는 6월 2일 동학농민군이 전주를 함락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긴급 대신회의를 열어 차병문제를 논의했다. 이때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앞서 살펴 본 대로 이미 위안스카이와 비공식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던 閔泳駿은 위안스카이의 주장을 앞세워 고종을 설득해 반대 의견을 누르고 청국군이 파병되도록 했던 것이다.

결국 청군 차병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선택의 여지를 잃은 조정과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민씨 척족, 그리고 조선의 근대적 식민지화를 피한 위안스카이 사이의 이해를 조정한 결과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정부의 정식 파병 요청에 따라 청국은 6월 7일부터 썬하이제독 예치차오(葉志超), 땡루창(丁汝昌)이 이끄는 약 3천 명의 병력을 산하이구안(山海關)으로부터 아

54) 제1조 중앙정부제도와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제2조 재정을 정리하고 재원을 개발할 것. 제3조 법률을 정돈하고 재판법을 개정할 것. 제4조 국내의 민란을 진정시키고 안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대와 경찰을 설치할 것(《日本外交文書》27-1, 문서번호 396, 586~591쪽).

55) 杉村濤 著, 한상일 편역, <在韓苦心錄>(《서울에 남겨 둔 꿈》, 건국대 출판부, 1993), 135~44쪽.

산으로 파견하는 〈천진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정부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하였다.<sup>56)</sup>

조선정부에서 청군 차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청원 휴가로 일본으로 돌아간 조선 주재 일본공사 오오토리 대신에 대리공사를 맡고 있던 이등 서기관 스기무라는 5월 22일자 보고에서 앞서 살펴본 조선정부의 두 가지 대응방안—내정개혁에 의한 회유와 청군 차병에 의한 무력진압—을 소개하면서 조선정부가 후자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군은 “[일본] 관민을 보호하고 청일 양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란이 진압되고 청군이 철수할 때까지 공사관 호위를 명분으로 구 조약(〈제물포조약〉)에 따라 출병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sup>57)</sup>

일본은 메이지유신 직후부터 조선에 대한 정보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특히 참모본부는 황토현전투 뒤인 5월 20일 참모부원 이지치 코오스케(伊地知幸介)소좌를 조선에 파견하여 공사관 무관 와타나베 테츠타로오(渡邊鐵太郎)대위 등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와타나베의 경우에는 이미 1894년 3월부터 경기·강원·함경·충청·경상도를 유람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선의 정황을 정탐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도 측량을 명목으로 남해안에 군함을 파견해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섰다. 서해안에 파견된 군함 ‘야마토(大和)’는 승무원을 군산에 상륙시켜 부근 실정을 정탐시키고 청국 군함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일본 군부의 정보 활동은 모두 농민군의 전주합락 이전, 즉 조선정부의 청군 파병 요청 이전의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다.<sup>58)</sup>

참모본부는 이미 5월 하순부터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대좌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조선 파병을 위한 수송 준비에 들어가, 육군의 대규모 연습을 명목으로 일본우편회사 소속 민간 선박을 징용하고 있었다. 또 5월 30일 조선 정세를 시찰하고 돌아온 이지치소좌의 보고를 받고 사실상 파견을 결정하고 있던 상태였다.<sup>59)</sup>

56)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淸日戰爭과 朝鮮: 外侵과 抵抗》(一潮閣, 1989), 13쪽.

57) 《日本外交文書》27-2, 152~153쪽.

58) 朴宗根, 앞의 책, 13~14쪽.

한편 일본정부는 대리공사 스기무라의 조선정부 청국 원병 요청을 알리는 6월 1일 타전을 접하고 이튿날 참모본부 차장 카와카미 등을 참석시킨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는 한편 무츠외상이 제출한 파병결의안을 채택했다. 5월 31일 중의원에서 정부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내각 탄핵 상주안이 가결되는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던 이토오내각으로서는 이 파병안이 천우신조처럼 보이지만, 전쟁 결정 당사자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이미 정치적 탈출구로써 개전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본정부의 조선 파병 결정이 조선정부가 위안스카이에게 청군 차병을 공식 요청한 것보다 하루 먼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파병 결의 직후 외상 무츠, 외무차관 하야시 타다스(林董), 참모본부 차장 카와카미는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적·외교적 책략을 협의하였다. 일본이 병력을 파견할 경우 청군은 반드시 공격해올 터인데, 청군의 병력은 5천 명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니 일본이 필승을 거두려면 6~7천 명 수준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 청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경우 청국은 강화를 요청해 올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만약 병력을 증파할 경우에 일본 역시 1개 사단을 증파하여 승리한다면 강화의 성립이 확실하므로, 먼저 혼성여단을 파병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sup>59)</sup>

6월 5일 일본은 〈戰時大本營條例〉에 근거해서 참모본부에 대본영을 설치하고 혼성여단의 파견에 대한 칙허를 얻어 히로시마(廣島)의 제5사단에 대해 제1차 충원을 명령했다. 6월 5일 혼성여단의 지휘자 제5사단의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소장은 군함 ‘야에야마(八重山)’호에 해군육전대 488명과 순사 20명을 대동하고 요코스카(横須賀)항을 출발하였다. 9일 인천에 상륙한 이들 일본군은 10일 곧바로 서울로 진주하였다.

동시에 상비함대 사령관 이토오 스케유키(伊東祐亨)중장의 지휘하에 기함 ‘마즈시마(松島)’를 파견, 이미 파견되어 있던 ‘즈쿠시(筑紫)’·‘치요다(千代田)’·‘야마토(大和)’·‘아카기(赤城)’와 함께 모두 6척의 군함을 인천에 집결시키고,

59) 參謀本部 編,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1(東京:育英社, 1904), 95쪽.

60) 藤村道生 著, 허남린 옮김, 《청일전쟁》(서울:소화, 1997), 82쪽.

부산에는 군함 ‘타가오(高雄)’를 정박시키는 등 일본이 보유한 군함의 거의 절반을 조선 연안으로 파견하였다. 연이어 선발대인 보병 제11연대 1천여 명이 12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혼성여단 병력이 인천의 요지와 수도 서울을 제압해 나갔다.

청군과 달리 조선정부의 요청에 의거한 것이 아닌 자국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기존의 조약을 완벽히 이용하였다. 즉 1882년 〈제물포조약〉과 1885년 〈친진조약〉이 그것이었다. 외상 무츠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제물포조약상의 권리에 근거하며, 또 이를 파견함에 있어서 〈친진조약〉에 준하여 [청국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였다고 명시한 그대로이다.<sup>61)</sup>

〈제물포조약〉은 제5조에 “일본공사관은 병사 약간을 두고 경위한다. 병영을 설치·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에게 맡긴다. 만약 조선국의 군민이 법률을 지킨다면 일년 후에 일본공사가 경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철수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었다.<sup>62)</sup> 또 〈친진조약〉 제3조는 “장래 조선국에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청국과 일본 두 나라 혹은 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서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이 진정되면 곧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그대로 남아 방비하지 않는다”<sup>63)</sup>고 했다.

일본정부는 이 조약에 따라 자국군의 파견을 청국에 통지했고, 〈제물포조약〉에서 규정된 대로 공사관과 거류민의 보호를 빌미로 병력 파견을 합법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민군과 정부군 사이에 진주화약이 성립되어 외국 군대의 간섭과 주둔의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6월 15일까지 자국군을 인천과 서울에 포진시켰다.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여 조선 주재 일본공사 오오토리는 위안스카이가 제안한 조선으로부터의 청·일 양국군 공동 철수를 위한 교섭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국 정부는 이 공동 철병안에 반대했다. 우선 청국과 일전을 벌임으로써 얻으려던 조선 지배의 기회를 놓칠 수

61) 《蹇蹇錄》，27쪽.

62)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90쪽.

63)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103~104쪽.



없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대규모 부대를 파견해 놓고 후퇴하는 것은 일본 국내 정치의 사정상 불가능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상황 돌파를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6월 15일 조선정부에 ‘내정 개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 내정개혁을 청·일이 공동으로 조선정부에 실행케 하도록 할 것을 청국에 제안했으나 청은 이를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거절했다. 이에 일본은 단독으로 개혁의 실행을 조선정부에 강요했다. 개혁을 강요받은 조선정부는 일본군이 철수한 후에 자주적으로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신속히 군을 철수부터 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현지의 오오토리 등과는 달리 조선정부의 강력한 요구와 열강의 압력 등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군 철수문제를 내정개혁의 요구에 의해 무마하고 계속 주둔의 구실로 삼으면서, 이를 청·일 개전의 도화선으로 이용하려는 외교 전략은 변경될 수 없는 일이었다.<sup>64)</sup>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7월 16일 밤 무츠는 서울 주재 일본공사에게 “단호히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구실을 사용해서라도 행동하라”고 지령했다. 7월 19일 대본영과 외무성은 선전포고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지 파견군에게 허용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sup>65)</sup>

〈朴英宰〉

### 3. 전쟁의 경과

#### 1)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황해 해전

청일전쟁은 1894년 7월 25일 아산만의 豊島 해전, 7월 29일 성환전투를 거

64) 高橋秀直, 《日清戰爭開戰過程の研究》(神戸: 神戸商科大学經濟研究所, 1992), 44~50쪽.

65) 《蹇蹇錄》, 55·139~144쪽.

쳐 9월 16일 평양전투와 17일의 황해 해전, 10월 24일 일본군의 압록강 도강, 11월 6일 라오둥반도 지역의 천조우(錦州) 점령, 11월 21일 뤼원구오(旅順口) 점령, 이듬해 2월 17일 산둥반도 지역에서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 점령, 그리고 3월 티엔쭈앙타이(田庄台)전투의 순으로 전개되어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난다.

1895년 4월 17일 〈청일강화조약〉, 즉 〈시모노세키(下關)조약〉에 의해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 그리고 타이완과 라오둥반도의 할양을 청국에 강요하게 된다.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황해 해전(94년 9월)과 웨이하이웨이 점령(95년 2월) 시점을 경계로 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94년 7월 25일 아산만 부근의 풍도에서 일본 해군이 청국함대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청일전쟁은 시작되었다. 개전 당시 일본군은 육군 7개 사단, 동원병력 12만(출동병력은 17만), 신식 무라타(村田)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해군도 일본은 군함 28척에 총 5만 7천여 톤이었고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청국군은 총 병력 35만이라고는 하나 훈련 미숙에다 편성·지휘체통·무기의 질에서 크게 떨어졌으며, 해군의 경우에도 척수·톤수에서 일본보다 다소 우세하기는 했으나 함대 편성의 불균형과 기동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풍도 해전에서는 일본 해군의 기습에 의해 청국 군함 한 척이 좌초되었고, 나머지 한 척은 피해를 입은 채 퇴각했다. 따꾸오(大沽)에서 아산으로 병력을 수송중이던 상선 ‘까우성호(高陞號)’도 일본함대의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당했다. 선상의 청군은 900명 중 사상자를 700여 명이나 냈으나 일본군은 영국 선장은 구조했다.<sup>1)</sup>

리홍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도 즉각적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다. 까오성호는 청국이 용선한 영국 배였기 때문에 영국이 “이 사건에 간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sup>2)</sup>이라고 판단하여 영국의 견제를 기대했던 것이다.<sup>3)</sup> 그러

1) 풍도 해전의 전황에 관해서는 〈日艦擊沈高陞號實況文件三種〉(《中日戰爭文獻彙編》6), 19~29쪽; 陳信德 譯, 〈東鄉平八郎擊沈高陞號日記〉(《中日戰爭文獻彙編》6), 30~35쪽 참조.

2) 《李文忠公全書》, 電稿 16권, 32쪽.

3) 《帝國主義與中國海關》(北京: 科學出版社, 1955), 50쪽.

나 일본이 신속하게 영국에 대해 까오성호 사건에 관한 사과와 배상을 약속함으로써 청국정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아산만 기습에 의해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일본군은 7월 28일 아산 동북쪽의 成歡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 29일에 太原鎭 總兵 세서청(攝士成)이 이끄는 청의 주력군을 패퇴시켰다. 예치차오(葉志超)와 세서청은 잔류병을 이끌고 평양으로 퇴각했고 청 조정에 대해서는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치밀한 사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작전 수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조선 민중의 방해 활동 때문이었다. 특히 동학의 농민군 등은 전쟁전부터 상소와 대자보를 통하여 ‘반일’의 기치를 들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었다.<sup>4)</sup> 그러나 전쟁에 임한 일본군은 아산 상륙 직후부터 지역 주민을 강제동원해서 군수물자 수송을 강요했으며, 식량과 부식도 닥치는 대로 약탈했다.

이에 대해 조선 민중은 비록 자연발생적이고 비조직적이긴 했으나 완강하게 저항했다. 조선의 지방 관아도 일본군 사령부의 지령을 기피했다. 이 무렵에는 일본이 이용하려던 대원군과 정부수반 김홍집까지도 은밀히 일본에 저항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민중의 협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청국군은 우세한 일본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결국 성환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8월 1일 청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같은 날 일본정부도 천황의 조서 형식으로 청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메이지 천황이 선전 조서에서 강조한 점은 전쟁의 목적이 조선의 ‘독립’ 보장과 내정개혁의 실시에 있다는 것, 또 전시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이었다.<sup>5)</sup> 중국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청·일 대립을 놓고 간섭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서구 열강을 의식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이 벌이는 전쟁이 ‘정의’로운 것이며 전쟁수행의 방법도 서구 근대

4) 姜昌一, 〈東學農民軍の日清戰爭への對應〉(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上, 東京: ゆまに書房), 277~284쪽 참조.

5) 宮内廳 編, 《明治天皇紀》8(東京: 吉川弘文館, 1973), 472~474쪽.

국민국가의 국제법이라는 ‘문명’의 체계에 입각한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열강을 중립화시켜 간섭을 배제하는 동시에 당시 일본 외교의 최대 현안이던 열강과의 조약개정 교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논리와 수사는 대내적인 국민 통합의 국면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이번 전쟁이 동양에서 서구문명의 대표자인 일본과 전통적 동양문명, 즉 야만의 대표자인 청국 사이에 벌어지는 ‘문명과 야만(文野)의 전쟁’임을 강조했다.<sup>6)</sup> 또 이후의 러일전쟁 때 철저한 ‘전쟁반대론’(非戰論)을 주장하게 되는 우치무라 칸조오(内村鑑三)도 이 당시에는 전쟁을 동양에서 ‘진보주의의 戰士’인 일본이 ‘진보의 敵’인 중국을 타도하기 위한 ‘문명의 의로운 전쟁(義戰)’이라고 자리를 매김 했다.<sup>7)</sup>

침략전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된 미즈이(三井), 미즈비시(三菱) 등 재벌은 군사 공채에 의한 전쟁 경비 모금을 위해 1894년 8월 배외주의 단체인 保國會와 奉公義會를 각각 설립했다.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서 정부와 대립해왔던 정당 세력도 ‘의전론’이란 이름 아래 10월의 제7임시의회에서 1억 5천 만 엔에 달하는 방대한 임시 군사예산과 군사 공채 발행을 내용으로 한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정부 이상의 대외 강경론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대중 매체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자유당의 기관지 《自由新聞》은 이미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하고 金玉均이 살해당한 시점을 전후해서부터 “조선은 조선의 조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호기임을 강조했다. 일본군이 파견될 때에는 일본 국민으로써의 애국심 고양을 찬미했으며, 7월 22일의 사설은 “개전을 선언하라”는 제목 아래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무력으로 청국과 조선을 함께 분쇄하는 것이므로 속히 개전을 선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sup>8)</sup>

신문들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른바 ‘軍國美談’을 제조해 내대서특필했다. 예컨대 성환전투 직후에 유포된 대표적인 ‘미담’으로서 안성

6) 《福澤諭吉全集》14, 591쪽.

7) 《内村鑑三著作集》2, 23쪽.

8) 松岡倂一, 〈《自由新聞》の戦争メッセージ〉(大谷正・原田敬一 編, 《日清戦争の社會史》, 大阪: フォーラム・A, 1994), 43~52쪽.

진격 당시의 나팔수 시라카미 켄지로오(白神源次郎)가 죽어가면서도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극적인 허구가 군가나 시의 형태로 복제되었다.<sup>9)</sup>

일본이 선전포고를 하자 청 꾸안쉬제(光緒帝)는 리홍장에게 신속히 병력을 파견하여 일본에 대해 공격하도록 명했다. 그러나 리홍장은 구체적 전략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예컨대 육군에게는 수비할 수 없으면 즉각 철수하라고 명령했으며, 해군에 대해서도 함선을 아낄 것과 大洋에서의 ‘浪戰’은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조선으로 증원된 四路군 병력이 평양에 도착한 것도 8월 상순의 일이었다.

한편 풍도전투와 성환전투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8월 26일 일본은 조선과 〈攻守同盟〉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첫째 청국군을 조선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조선의 자주 독립을 공고히 하며 조·일 양국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둘째로 예상되는 청국의 공격시에 일본이 전쟁을 담당하고 조선은 일본군의 활동에 전폭적으로 협조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청국과 和約이 성립되면 이 맹약을 파기한다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곧바로 북상하여 평양으로 진격, 공격을 시작했다. 당시 평양에는 증원군이 파견된 데다 성환에서 패주해 온 예치차오 등의 병력까지 합류하여 모두 2만여 명의 청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소장 등이 이끄는 일본군은 사방으로부터 평양으로 접근하여 9월 13일 평양성 포위를 완료한 뒤 이튿날부터 산발적인 공격에 들어갔고 15일에는 총공격을 개시했다.

당시 성환에서 일본군의 포위망에서 빠져 나온 청국군은 조선 민중의 협력을 얻어 북부 지방으로 들어오던 주력 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우회해서 평양에 도착해 있었다. 평양의 청군-빼이양(北洋) 육군은 마우제르(Mauser)형 연발 장총과 크루프(Krupp)식 후장포(後裝砲)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군의 주장비는 무라타(村田) 소총과 청동포였기 때문에 육군의 장비를 따지자면 청군이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러나 평양의 청군은 병참 설비가 없다시피 했고 무엇보다 먼저 왜 전투

9) 宇野俊一, 《日清・日露：日本の歴史》(東京：小學館, 1976), 74쪽.

를 치러야하는가 하는 전쟁에 대한 동기 부여가 없어 투지와 사기가 별로 일고있지 않았다. 여기에 일본군의 총 공격을 앞둔 사령부의 우유부단과 무능 등이 악재로 겹쳐있었다. 따라서 1만2천 명의 청군은 1만 7천 명의 일본군을 이기지 못하고 600명의 포로를 남기고 9월 16일 밤 평양을 포기, 압록강을 건너 패주했다.<sup>10)</sup>

조선 민중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유격전을 벌일 수도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국군은 이러한 민심을 활용하지 못한 채 기선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국군은 규율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이르는 곳마다 노략질을 하는 등 조선인민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조선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청군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는 별로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청일전쟁은 조선인들의 반일 감정이 청국에 대한 실망과 함께 공존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1)</sup>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농민군은 일본군이 공주에 도착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의 전진선을 절단해 연락망을 마비시켰고, 일본군에게 식량과 말, 소 등 가축을 팔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거부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일본군의 보급 부대를 습격하기도 했다. 이러한 저항으로 일본군은 할 수 없이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노동자 1만 명을 일본으로부터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sup>12)</sup>

일본의 침략이 급속히 진전되고 청국이 군사적으로 패배하자 구미 열강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영국은 일본의 전쟁 경비를 청국이 배상할 것,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강화조약이 체결되도록 열강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지 격려했고, 제정 러시아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다른 열강은 영국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10) 《一億人の昭和史：日本の戦史-1：日清・日露戦争》(東京：毎日新聞社, 1979), 13~15쪽.

11) 李英 主編, 《中國戰爭通鑑》上(北京：國際文化出版, 1995), 761~762쪽.

12) 조선 인민의 저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清日戰爭과 朝鮮：外侵과 抵抗》(서울：一潮閣, 1989) 참조.

한편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9월 16일 메이지 천황은 히로시마(廣島)에 도착, 제5사단 사령부로 대본영을 이전했다. 앞서 살펴 본 대로 일본은 이미 〈戰時大本營條例〉에 근거하여 6월 5일 참모본부 내에 대본영을 설치하고 전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대본영을 이전하자고 건의하여 성사시킨 이토오의 의도는 천황이 전쟁을 직접 지도한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강화시키자는 데 있었다. 실제로 메이지 천황은 대본영 군사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이끌었다. 잇단 승전보에 고무된 일본 국민의 전쟁 열기는 대본영 히로시마 이전과 천황의 진두 지휘에 의해서 더 한층 증폭되었다.<sup>13)</sup>

평양전투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둔 뒤인 9월 17일 황해에서는 우선 일본 연합함대의 군함 12척과 평루창(丁汝昌) 제독이 이끄는 北洋함대 소속 군함 14척이 전투에 돌입했다. 이 황해大海전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해군끼리의 접전이였다.

청일전쟁에 동원된 전체 해군력을 살펴보면, 일본의 연합함대는 모두 27척으로 모두 5만 톤을 넘었다. 척 당 평균 2천 톤 이하였다. 청의 북양함대는 21척에 약 4만 톤으로, 척 당 크기는 일본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청의 해군함정들은 큰 배와 작은 배들의 조합이었다. 이를테면 ‘팅위엔(定遠)’ ‘쥘위엔(鎮遠)’ 두 척은 7천4백 톤 급, 이 아래로 여섯 척이 2천에서 3천 톤 급, 그 아래 4척이 천 2~3백 톤 급, 나머지 9척은 모두 수백 톤 급의 작은 배들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해군은 ‘하시다테(橋立)’, ‘이즈쿠시마(巖島)’, ‘마즈시마(松島)’, ‘요시노(吉野)’ 네 척이 4천 톤을 웃도는 최대 함정이었고, 그 아래로 3천 톤 급 4척, 2천 톤 급 3척, 천 톤 급(1030~1760톤)이 10척, 나머지 6척이 6백 톤 급이었다, 주력 함정들이 중~대형으로 고루 섞여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천 톤 급 이상만 따진다면 청일 각각 12척 대 21척이었다.

최대 속도는 청 해군이 18노트 급이 두 척, 14~16노트가 8척, 10노트가 10척 정도였다. 특히 7천 톤 급의 거함들은 14노트, 가장 빠른 18노트 속도

13) 檜山幸夫, 〈天皇の戦争〉(大谷正 等編, 앞의 책, 77~106쪽).

의 두 척은 2300톤 급이었다. 일본은 이에 비해 ‘요시노’가 4천 150톤에 23노트, 17~10노트 급이 8척인데 이 함정들은 쾌속과 함께 대개 크기도 컸다. 이를테면 일본 배로 가장 큰 4천 2백 톤 급의 ‘마즈시마’도 17노트가 넘었고(청의 7천 톤 급 ‘팅위엔’이나 ‘쥘위엔’은 모두 14노트) ‘하시다테’, ‘이즈쿠시마’도 18노트에 가까운 최대속도를 갖고 있었다.

무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청군의 최대 함정들은 장비와 크기가 정비례하지 않았다. ‘팅위엔’만이 구경 30센티 크루프(Krupp) 거포 4문을 장착했을 뿐 나머지는 ‘핑위엔(平遠)’ 호에 26센티 포가 한 대 장착된 외에는 구경 10~26센티 이상의 함포는 모두 합해 30여 문 정도가 장착되었을 뿐 나머지는 기관포 따위였다. 일본은 구경 32센티 포 4문을 필두로 10~26센티 급이 모두 200문 이상 장착되어 있었다.<sup>14)</sup>

이처럼 총 톤수나 척수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 차이가 북양함대와 일본 연합함대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속도와 화력 면에 있어서 청일 양군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다. 속도에 있어 최고 30%까지 일본함대가 빨랐고 화력으로는 6대 1 이상 차이가 나 있었다. 더욱이 문제는 전술과

14) Vladimir, *The China-Japan War: Compiled from Japanese, Chinese and Foreign Sources*(London: Sampson Low, Marston and Company, 1896), pp.76~87. 저자로 밝힌 Vladimir란 이름은 물론 러시아 인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성명이 아닌 일반적인 러시아 이름이다. 이름에 덧붙여 “Lately of the diplomatic mission to Korea”라 하여 정직한 표현이라면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으로 복무한 인물일지도 모르겠다. 편찬자 스스로도 “일본 자료에 치중해서 쓴 것”(“To My Readers”)이라 했듯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전황, 전투 장비 등 실증적 묘사에서는 중국측 자료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전쟁 당시 그리고 전쟁 직후에 실제로는 일본인이 편찬하고 영미인들의 이름으로 출간된 전쟁 관련 서적이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보통 도와 준 일본인의 이름이 병기되는 경우가 많다(이를테면 위 Vladimir의 책과 같은 출판사에서 1897년에 간행된 *Heroic Japan: A History of the War between China & Japan*의 경우는 저자를 F. Warrington Eastlake, Ph.D, & Yamada Yoshi-Aki, LL.B로 밝혔을 뿐 아니라 머리말은 ‘친황폐하 만세’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선전 책자에 비하면 그래도 중립적 서술에 가까운 자료로 볼 수 있다. 중국 해군의 장비 등에 관한 최근에 정리된 중국측 자료로는 姜鳴 編,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 1860~1911》(北京: 三聯, 1994)이 유용하고 일본측 자료로는 〈軍事的視點からみた日清戦争〉(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下, 東京: ゆまに書房), 89~101쪽이 있다.



사기였다.

9월 17일 압록강 어구 황해에서 벌어진 청일의 황해 해전은 사상 최초의 달리는 기선 군함들끼리의 회전이기도 하였다. 이 전투에서 서로 맞선 해군력은 청군이 14척 총 톤 수 3만 6천여 톤, 일본군이 12척 총 톤수 약 4만 톤, 각 군의 최고 속력은 위에 살핀 그대로이고, 일본측 자료에 따르자면 화포-속사포만 따질 경우 일본군이 246문, 청군은 79문을 각각 장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sup>15)</sup>

오전 10시 30분 일본함대가 서남쪽으로부터 진향해 오는 것을 본 명루창 휘하의 청군은 열 척의 전함을 학이 날개를 편 횡렬을 만들어 적을 맞았다. 마치 만주족의 기마전을 방불케 하는 일렬 횡대 대열이었다. 중앙에 기함 텡위엔을 두고 양쪽으로 각각 4척과 5척으로 날개를 삼고 두 척을 꼬리 뒤에 두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케 하고 그 뒤를 다시 어뢰정을 뒤따르게 한 편대였다.

일본군은 일렬 종대로 돌진해 왔다. 요시노를 선두로 멀게는 약 600미터, 가깝게는 300미터 거리를 두고 횡렬로 포진한 청군의 함대 머리들 앞으로 한 척 씩 공격하면서 지나가는 형국이었다.

12시 50분 쌍방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청국의 기함 ‘텡위엔’이 선공을 날렸고 나머지 함정들도 불을 뿜었다. 그러나 명중보다는 빗나가는 포탄이 더 많았다. 명루창은 공교롭게도 함교에서 넘어져 부상당했다. 일본군은 한 척 한 척 다가오면서 우현의 속사포를 뿜고는 달아났다. 청군함 두 척에 먼저 명중되었다. 선두에 섰던 일본함 ‘요시노’도 한방을 맞고 불이 붙었다. 한 시간 가량의 전투 끝에 1300톤 급 청함 ‘차오왕(超勇)’이 침몰했다. 일본 군함 세척도 중상을 입었다.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여기서 일본군함들의 빠른 속도가 위력을 내기 시작했다. 치고 되돌아온 일본군함들은 다시 횡대로 늘어선 청함을 쳤다. 북양함대의 뒤를 돌아 배후까지 노리며 덤벼들었다. 협공의 위기였다. 청함대는 혼란에 빠졌다. 대대장 명취에창(鄧世昌)은 23노트의 당시 최고의 속력과 15센티 속사포 4문을 장착

15) 앞의 《一億人の昭和史：日本の戦史-1：日清・日露戦争》, 21쪽.

한, 그러나 상처를 입고있는 ‘요시노’를 특히 주목하고 자신의 함정으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먼저 어뢰를 맞고 명췌에창을 비롯 한 250여 명의 청 장병들이 배와 함께 수장되었다.

‘정위엔(經遠)’이 뒤를 이어 요시노를 노렸다. 그러나 요시노의 속사포는 오히려 ‘정위엔’을 역습했다. 다시 250여 명의 장병이 수장됐다. 두 척의 침몰을 보자 ‘찌위엔(濟遠)’과 ‘광찌아(廣甲)’의 지휘자는 후퇴를 명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청함들은 전력을 다해 항전했다. ‘마즈시마’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제 청함들이 일본함 주위를 돌며 공격하기 시작했다. 기함 ‘마즈시마’는 기능이 마비되었다. ‘요시노’는 전투력을 상실했다. 북양함대가 기력을 되찾고 재집결하기에 이르자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이토오는 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했다. 저녁 6시 가까운 시간이었다. 잠시 추격하던 북양함대는 뒤흔으로 회항했다.

일본함정 5척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6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청함은 4척이 없어지고 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산술적으로 청군의 패배였지만, 일본군의 전투 결과는 본국에 과장되어 보고된 반면 청군의 감투는 패배로 과장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아마도 리홍장의 해군 군사력을 아껴두려는 의도에서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그는 이 해전 이후 다시는 함대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황해의 제해권은 자연스레 일본의 수중으로 돌아갔다.<sup>16)</sup>

황해 해전 이후 시타이허우(西太后)는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할 요량으로 총리아문에 위쭈(奕訢)를 기용하고 리홍장을 파견하여 러시아를 통해 화의를 청하고자 했다. 10월 12일 리홍장은 티안쥘에서 러시아 사절을 접견하고 러시아가 직접 나서서 전쟁에 간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러시아는 전쟁 초기의 관망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러시아 공사 카시니(Arthur Pavlovitch Cassini)는 뻬이징에 있는 각국 공사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만 대답했다.<sup>17)</sup>

당시에 영국은 전쟁 초기부터 일본에 기울어져 있었지만 중국이 영국에 보조를 맞추어 극동정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1893년 겨울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동북의 국경문제를 담판할 때도 청국

16) 李英 主編, 앞의 책, 761~762쪽

17) 朴英宰, 〈清日戰爭과 日本外交〉(《歷史學報》53·54합집, 1972), 161~162쪽 참조.

정부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sup>18)</sup> 그러나 평양과 황해 전투 이후 영국의 여론은 중국에 등을 돌렸다. 타임즈(*The Times*)紙는 사설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여전히 우리가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한 심리에 대해 양보를 해가며 우의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잠재력에 관한 신화와 중국이 각성할 것이라는 몽상은 이미 이번 전쟁으로 깨졌다”고 말했다.<sup>19)</sup>

여기에는 청일전쟁 이전부터 중국과는 달리 일본정부가 주력했던 해외 유력 매체에 대한 선전 공작이 주효한 바 있다. 외국 신문사와 통신원들에 대한 메이지정부의 공작은 주로 제2차 이토오 내각의 외무성과 내각 서기 관장 이토오 미요지(伊東巳代治)가 담당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아직은 국제적인 공작 경험과 기법이 일천했기 때문에 선전 공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선전 공작에는 외국인들, 특히 영국과 미국 인사들이 다수 동원되었다.<sup>20)</sup>

대표적인 인물로는 시볼트(Alexander Siebold), 스티븐스(D. W. Stevens)와 하우스(E. H. House)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하우스는 외상 무츠와 오랜 동안의 개인적인 연분을 갖고 있었다. 외무성에 고용된 시볼트와 스티븐스는 각각 영국·독일과 미국에서 일본 공사와 협력하여 현지 신문의 기사와 논조를 조종하는 역할을, 뉴욕 트리뷴(*New York Tribune*)과 월드(*The World*)지의 일본 특파원이었던 하우스는 일본에게 유리한 기사를 송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먼저 영국 로이터(Reuters) 통신사에 대한 공작은 시볼트를 매개로 영국·독일 공사를 겸임하고 있던 아오키 슈우조오(青木周藏)에 의해 추진되었다. 즉 아오키의 요청에 의해 외상 무츠가 로이터 통신에 연간 6백 파운드의 공작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아오키와 로이터 통신사 대표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영국의 센트럴 뉴스(*Central News*)사에 대해서도 아오키공사를

18) 《李文忠公全書》, 電稿 15권, 5~6·10~13쪽.

19) 《*The Times*》, 1894년 9월 30일.

20) 이상 국제 선전전에 관해서는 大谷正, 〈日清戦争期の對外宣傳活動 E. H. ハウスの活動にふれつつ〉(《年報近代日本研究 12: 近代日本と情報》, 東京: 山川出版社, 1990), 157~181쪽을 참조할 것.

통해 일본 대본영의 예비금을 자금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정보를 신문에 유포하도록 했다. 예컨대 11월에 뤄쑤 학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센트럴 뉴스사는 사건을 축소 보도하여 타임즈지 등에 게재하게 한 바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야오카 코오지로오(宮岡恒次郎) 임시대리공사가 스티븐스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과 가까운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접근하여, 종래 일본의 조선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논조를 일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만들었다. 또 스티븐스는 유피(*United Press*) 워싱턴 지국장을 통해 저팬 메일(*Japan Mail*)社 사주 겸 주필인 브링클리(Captain Francis Brinkly)를 유피 일본통신원으로 해서 유리한 정보를 가맹 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1892년 무츠의 외상 취임 직후 일본으로 온 하우스는 무츠가 지휘하는 가운데 뉴욕 트리뷴지와 뉴욕 타임스지를 대상으로 조약개정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며 국제 선전에 종사했다.

청일전쟁에 특파원을 직접 파견했던 런던 타임즈(*The Times*), 월드, 뉴욕 헤럴드(*New York Herald*)사에 대한 공작은 특히 중요했다. 특히 월드지의 크릴만(James Creelman) 특파원은 뤄쑤 학살에 대한 규탄 기사처럼 일본에 불리한 정보를 송고하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월드지에서 하우스는 크릴만의 기사를 뉴욕으로 전송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크릴만의 통신 내용을 무츠에게 통보하여 일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발송을 지연시키거나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수행했다.

하우스는 1894년 12월부터 크릴만의 후임으로 월드지의 정식 통신원이 되었고, 이후 일본군의 뤄쑤 학살에 대한 무츠의 변명 등 일본의 입장을 변호하는 통신, 또 리홍장 저격 사건이나 명성황후 살해 사건 등에 대해 발췌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역할도 했다. 이들에게는 외무성과 내각을 통해 지원비가 할당되었으며 나중에는 메이지정부로부터 叙勳과 연금 등 혜택이 주어졌다.<sup>21)</sup>

21) Jeffrey Dorwart, *The Pigtail War: American Involvement in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Amherst: Univ. of Mass. Press, 1975), pp.105~111 참조.

## 2) 중국에서의 전투

황해 해전까지의 전쟁 제1단계에서 예상외로 기선을 제압하게 된 일본군은 1894년 10월 24일 선발대를 투입, 압록강을 건너 중국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25일에 찰오리엔청(九連城)과 안둥(安東)을 점령했다. 라오둥반도 평원에서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11월 7일에 일본군은 찰조우(金州)를 함락시켰고, 8일에는 파리엔(大連)까지 점령하기에 이른다. 일본이 만주족 청조의 근거지인 라오둥지역으로까지 침입하자 청으로서는 일본과의 화의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0월 30일 위주는 미국에 조정을 요청했고, 11월 3일에는 각국 공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과 미국, 영국은 조정에 나서기를 거부했고 러시아는 주저하고 있었다. 어떠한 열강도 연합 행동은 거부했고, 다만 전쟁이 계속될 경우 일본이 육상 및 해상에서 군사행동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이 지역에 이권을 가진 여타 국가들이 일본에게 불리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지 모른다는 권고를 해주는 정도였다.<sup>22)</sup>

청국은 이처럼 열강의 조정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일본에게 직접 화의를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1894년 11월 18일 청 조정은 티안쥘 세관 세무사인 독일인 데트링(Gustav Detring)에게 리홍장의 화의서를 이토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11월 26일 텍스트링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정부는 데트링이 청국인이 아니며 리홍장의 서신도 국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절하는 동시에, 청의 고위 관리가 황제의 欽差 사절로 파견되지 않는다면 결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미 11월 22일에 일본군은 뤼쑤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찰조우(錦州) 함락 직후 뤼따(旅順·大連) 전선을 총지휘하던 쑹샤오위(龔照燾)가 티안쥘으로 도망간 상태에서 후방 지원을 받지 못한 청국군은 17일부터 시작된 일본군의 포위 공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뤼쑤를 내주고 말았다. 일본측 사상자는 겨우 3백 명에 불과했다.

22) P. Joseph, *Foreign Diplomacy in China*(London : Macmillan, 1928), p.74.

뤼쑤는 1880년대부터 중국 해군의 요람이었다. 거액의 비용과 10수년 동안 을 전력을 다해 구축한, 당시 동아시아 최대의 도크를 갖고 있던 군사 요새였다. 뤼쑤를 점령한 일본군은 비전투원을 포함하는 중국인들에게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28일자 <뉴욕 월드>지에 의하면 점령 직후 부녀자와 유아를 포함한 비전투원까지 모두 6만 여명이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이 학살에 대해 <월드>지의 크릴만기자는 “일본은 지금 문명의 가면을 벗고 야만의 본모습을 드러낸” 괴물이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정부의 언론 공작이 있어서 그 실상은 상당히 축소되어 보도되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잔학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sup>23)</sup>

11월 23일 청 조정은 랴오둥반도 궤멸의 책임을 물어 리홍장을 문책했다. 직무는 유지한 채로 직위만 파면하는 형식적인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군사와 외교에서 그의 역량을 대신할 인물은 당시 중국에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군은 요충지 뤼쑤를 장악한 뒤 청국 해군을 소멸시킬 작정으로 북양 해군 제2의 기지였던 산둥반도의 웨이하이웨이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때 청군은 뤼쑤 함락 이후 방어선의 중점을 랴오둥·선양(遼東·瀋陽)지역에 두고 있었다. 수도 북경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티안쥘 일대로 집결시키고 산하이구안 부근에 10만 이상의 군인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산둥반도 방어선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비 병력은 1만7천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웨이하이웨이 인근의 룡칭(榮成)을 방어하는 병력은 1,400명뿐이었다. 당시 웨이하이웨이 군항은 신식 대포 60문이 늘어선 포대를 갖추었고 육군 1만여 명이 방어를 하고 있었으며, 북양 해군의 함선이 20여 척 정박해 있었다. 11월 30일 리홍장은 웨이하이웨이의 북양 해군에 대해 황해 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浪戰’을 하지 말고 포대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23) 이 학살에 관하여 다큐멘터리로 접근한 상세한 기술은 井上靖樹, 《旅順虐殺事件》(東京:小學館, 1995)을, 중국인에 의한 최근 연구로는 秦郁彦, 《旅順虐殺事件: 南京虐殺と對比しつつ》(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下, 東京: ゆまに書房), 285~298쪽 참조.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를 사령관으로 한 일본 산똥 작전군 약 2만 명은 일본 연합함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일본을 출발하여 1895년 1월 23일 청산쵸(成山角) 부근의 룡쉬다오(龍須島)에 상륙한 뒤, 방어가 허술한 룡청을 곧바로 점령하였다.

일본군이 상륙할 때 산똥 방어 임무를 주관하던 리병형(李秉衡)은 상륙 뒤 피곤한 일본군을 제때 공격하지 않고 이틀이나 그들에게 휴식할 여유를 주었다. 1월 25일 일본군은 남북 두 갈래로 나뉘어 웨이하이웨이를 공략했다. 한편으로는 웨이하이웨이를 또 한편으로는 룡청의 남쪽에서 방포대를 단절시켜 청군의 퇴각로를 차단하는 한편, 북쪽에서부터 방포대로 진격해 들어가는 양면·양동작전을 구사한 것이다.

청군의 응수에도 불구하고 30일 웨이하이웨이의 남쪽 방포대가 함락 당함으로써, 일본군은 항내의 북양함대 군함에 대해 직접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1일에는 북쪽 방포대까지 폭파됨으로써 청군은 육상 거점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2월 3일 룡청만으로부터 출항한 일본 연합함대와 남쪽 포대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 육군은 청국 북양함대 및 류푹다오(劉公島)에 대해 수륙 합동작전을 개시했다. 양국함선 다수가 격침되는 치열한 전투 끝에, 8일 일본 해군은 류푹다오를 장악했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지휘관 류부찬(劉步蟾), 명루창은 잇달아 자살을 택했다.

2월 12일 쩌위엔(鎮遠) 등 북양함대의 살아 남은 군함은 외국 고용인 등에 의한 하극상의 협박 아래 일본군에게 투항했고 2월 17일 일본군은 정식으로 웨이하이웨이를 점령했다. 이 작전에서 일본 해군은 사상 최초로 水雷를 주로 이용한 야간 기습 공격을 벌였다. 북양함대는 전멸한 것이다.<sup>24)</sup>

웨이하이웨이 공략이 시작되기 전인 12월 13일 일본군이 하이청(海城)을 함락시키고 16일에는 푸조우(復州)를 점령하는 등, 상황이 급진전되자 청 조정은 12월 22일 湖南巡撫 샤오위린(邵友濂)을 戶部侍郎 쟁인후안(張蔭桓)과 함께 전권대신으로 일본에 파견하고, 또 미국의 전 국무장관 포스터(J. W.

24) 《中國戰爭通鑑》上(北京：國際文化出版, 1995), 762~764쪽 및 앞에 든 《一億人の昭和史：日本の戦史-1：日清・日露戦争》, 44~45쪽.

Foster)를 초빙하여 대표단의 고문으로 삼았다. 그러나 포스터는 청국 주재 공사관을 역임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무츠와 주미공사 쿠리노 신이치로오(栗野愼一郎)와 상당한 친분을 가진 일본에 가까운 인물이었다.<sup>25)</sup>

1895년 1월 31일 웨이하이웨이 공방전이 한창인 때 쟁인후안과 샤오위린은 일본측이 지정한 장소인 히로시마(廣島)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토오는 전권 대신 위임받았다는 신임장의 형식과 전권대신의 형식상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화의를 거절했다. 이토오는 중국 대표단 참서관 우팅팡(伍廷芳)에게 공(恭)親王이나 리홍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7일 청 조정은 일본정부에 조회하여 일본측 의견대로 전권위임장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은 쟁인후안과 샤오위린을 귀국시키고 사실상 담판을 거절했다.

일본이 이들과의 담판을 파기한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 이때가 되면 일본은 최초의 전쟁 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전과를 올렸고 특히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의 점령을 눈앞에 두고있을 시점이었다. 또 육군과 해군은 서로 전리품에 대한 희망이 달랐다. 육군은 랴오둥이나 산둥 등 중국의 육지에서 영토(거점)의 확보를 위한 반면, 해군은 타이완 등 해양 세력의 팽창에 긴요한 지점의 점령을 원하고 있었다.

무츠 등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희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강화안을 입안하고 중국이 제국주의 침략을 당한 이래 일찍이 할양해 본 일이 없는 영토,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땅 덩어리를 강화조약의 조건으로써 일본과 담판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서명할 수 있는 고위급 실세가 강화회담의 상대방으로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물론 쟁인후안과 샤오위린은 그러한 지위나 힘을 갖지 못한 고위 실무자급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이 원하는 상대는 물론 리홍장이었다. 따라서 무츠와 이토오는 쟁인후안과 샤오위린의 전권위임장을 다시 고쳐 서식과 내용을 완벽히 하겠다는 청의 요청을 당연히 묵살했던 것이다.<sup>26)</sup>

쟁인후안과 샤오위린 양 사절이 빈손으로 청국으로 돌아오던 2월 12일은 류푹다오의 북양함대 잔여 함선이 일본 해군에게 모두 투항했고, 이를 계기

25) <科士達回憶錄>(<中日戰爭文獻彙編> 제7책), 463~465쪽.

26) 朴英宰, 앞의 글, 169~174쪽 참조.



로 북양함대는 완전히 궤멸된 날이었다. 2월 17일 일본군은 정식으로 웨이하이웨이를 점령했다.

웨이하이웨이 함락 이후 청일전쟁은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선은 라오둥 평원 깊숙이 침착되었다. 1894년 말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하이청(海城)과 까이핑(蓋平) 등 전략적 요충지가 잇따라 함락됨으로써 청국에게 산하이구안 동쪽의 형세는 더욱더 엄중해졌다.

1895년 1월 구앙쉬제(光緒帝)는 兩廣總督 류쿤이(劉坤一)를 임명하게 하여 欽差大臣 겸 湖南巡撫 우파청(吳大澂)과 總統 쑹칭(宋慶)을 도와 산하이구안 부근의 각 군을 통솔하게 하였다. 1월 17일 라오양(遼陽)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허이룽장(黑龍江)장군 이커탕아(依克唐阿)와 쪄린(吉林)장군 창쑤(長順)이 연합하여 하이청 반격을 가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월 22일 이커탕아와 창쑤의 양군은 제2차 하이청 반격에서도 패배하였고, 이에 2월 11일 우파청이 청국군의 절대 방어선인 티엔쭈앙타이(田庄台)에 도착하여 청군 병력을 증가하였다. 2월 16일과 21일 쑹칭과 이커장아, 창쑤는 3만 여의 대군을 동원하여 제3·4차 하이청 반격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실패로 끝났다.<sup>27)</sup>

2월말 새로운 공격을 위한 청군의 조직이 준비되기 전에 일본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하이청을 출격해 안산(鞍山)을 점령하였다. 3월 4일 일본 제1군 2개 사단 1만 2천 명은 청군의 뇨쭈양(牛莊) 수비대 약 5천 명을 협공하였다. 청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일본군 사상자 4백 명을 내는 격전이 벌어졌으나, 청군은 2천명에 달하는 사상자와 포로 6백 명을 낚으면서 결국 뇨쭈양 함락을 맛보아야 했다.

3월 7일 일본군은 잉쿠오(營口)마저 점령하게 된다. 치열했던 이 결전은 청일전쟁 최초의 시가전이이기도 하였다. 양군 각 2만 명의 대군이 맞섰다. 9일 일본군은 드디어 티엔쭈앙타이(田庄台)를 공격하였고 쑹칭이 이끄는 청군

27) 이 지역의 전투의 문제점과 지역 인민들의 항쟁에 관해서는 山東省歷史學會編, 《甲午戰爭九十周年紀念論文集》(濟南: 濟魯書社, 1986)의 249~62쪽의 潘國華·劉玉岐, 〈簡述甲午戰爭時遼東戰場: 清軍后勤的幾個問題〉와 263~76쪽의 孫克復, 〈甲午戰爭期間遼寧人民自發抗日鬭爭述略〉 두 논문을 참조할 것.

은 대패하였다. 치옌쑤앙타이가 함락됨으로써 라오똥반도의 주요한 城鎮은 모두 일본군에 점령당했고 청군의 라오똥 전선은 모두 와해되었다.<sup>28)</sup>

육지에서의 전투는 이로써 거의 모든 전선에서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은 라오똥반도의 남해안 서북해안 그리고 내륙쪽의 평원을 모두 제압했다. 물론 티안전에서 빼이징에 이르는 지역의 급소뿐 아니라 황해바다를 제압하는 웨이하이웨이지역도 수중에 넣게 된 것이다. 수도 빼이징으로의 진격은 시간문제로 되었다. 이제 청국에게 남은 길은 강화밖에 없었다. 청국은 일본의 뜻대로 리홍장을 강화회담을 위한 전권대표로 임명하고 시모노세키로 향하게 했다.

3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는 휴전협정이 일단 체결되었으나 평후도(澎湖島)와 타이완은 제외되어 있었다. 강화회담 직전 사세호(佐世保)를 출발한 일본의 혼성여단은 평후 섬들을 공략하였다. 작전다운 작전이랄 것도 없이 南지나해의 제해권도 일군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이 전투로 인한 일본군의 전사자는 열 사람도 채 안되었지만 풍토병이라거나 돌림병으로 총동원 인원 6,100여 명 중 1,200여 명이 죽었다.

이 같은 일은 타이완 점령 전투에서도 되풀이된다.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2만 6천 명 중 전사는 160여 명 밖에 안 되었던 데 반해 병사한 인원이 4천 6백 명에 이르렀던 것이다.<sup>29)</sup> 더욱이 타이난(臺南)까지 타이완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 상륙·전진하는 일본군을 본토의 전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센 저항이 가로막았다. 타이완의 원주민들은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끈질긴 게릴라전으로 이후 수년 동안 일본을 괴롭혔던 것이다.<sup>30)</sup>

〈朴英宰〉

28) 關捷·劉志超, 《沈淪與抗爭: 甲午中日戰爭》(北京: 文物出版社, 1991), 도판과 설명 280~292번.

29) 앞서 인용한 《一億人の昭和史: 日本の戦史-1: 日清・日露戦争》(毎日新聞社: 1979), 23~51쪽.

30) 타이완 인민들이 세운 공화국 「臺灣民主國」과 항일투쟁에 관해서는 吳密察, 〈日清戦争と臺灣〉(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清戦争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上, 東京: ゆまに書房), 339~369쪽을 참조할 것.

## 4. 중재와 강화

### 1) 열강의 중재

청일전쟁은 열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만큼 전쟁 발발 전부터 중재를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894년 6월 9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공사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조선정부가 병력을 대동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해군 육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로 진입했다. 청국군도 제1차 파견대 2천여 명을 8일부터 아산에 상륙시켜 충청도 일대에 포진시키고 있었다. 오오토리가 귀임했을 당시 서울은 평온하고 아산지역의 청군 또한 움직일 기색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츠·하야시·카와카미 등이 협의했던 조선 작전이 예상했던 것과는 크게 어긋나는 양상이었다. 때마침 전주화약도 맺어져서 병력 파견의 명분도 사라져 버린 판국이었다. 조선정부는 군대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조선 주재 서양 외교관들도 조선정부의 요청없이 병력을 파견한 일본의 행동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구미 열강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러시아와 영국이다.

주일 러시아공사 히트로보(Mikhail Aleksandrovich Hitrovo/Khitrovo)는 이미 6월 8일에 무츠외상에게 일본군 파견 이유를 질문했던 바 있다. 무츠의 답변은 청국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히트로보는 일본함대가 조선 연해에 계속 집중되고 있고, 영국함대도 거문도에 정박하여 벌써 3개월 분의 군수물자를 비축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동쪽 국경에 분규를 초래할 가능성이 생겼음”을 본국에 타전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었다.<sup>1)</sup>

1) ‘Telegram of the Minister at Tokyo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June 8, 1894), “Russian Documents Relating to Sino-Japanese War, 1894~1895”, in B.G. Weber & S.R. Dimant eds., *Krasny Archiv*; in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Oct. 1933/#3/vol.17), p.485(이하 *Krasny Archiv*

13일에는 조선에 주재하는 러시아의 대리 공사, 독일의 부영사가 오오토리 공사와 회견한 자리에서 일본군의 대거 투입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오오토리는 공사관 호위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변명이 궁색하기는 매 한가지였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6월 12일부터 청일 양국은 위안스카이와 오오토리 사이에 공동 철병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5일에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즉 6월 15일을 시점으로 일본은 이미 상륙한 육군 병력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명을 인천에 주둔시키고 청국은 상륙 병력의 5분의 1인 400명만 아산에 남기며 나머지 병력은 양국 모두 본국으로 즉각 철수시킨다는 것이었다. 잔류 부대 역시 ‘민란’이 진압되기를 기다려서 <친전조약>의 뜻에 따라 조속히 철수시킨다는 내용이었다.<sup>3)</sup> 이제 병력의 공동 철수는 양국정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일본공사 오오토리의 공동 철군 교섭은 일본정부의 정책이 아니었고 특히 외상 무츠의 사전 양해도 얻지 않은 것이었다. 오오토리는 조선 정세를 보건대 공동 철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위안스카이의 공동 철병 제안을 받아들여 교섭에 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츠는 6월 13일 오오토리의 증원군 귀환 요청을 비판하면서 대규모 일본군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귀국시키게 되면 매우 불상사나올 뿐 아니라 득책도 아니니… 지체없이 병력을 서울로 입성”시키라는 훈령을 내렸다. 서울의 오오토리는 현시점에서 신속한 철병만이 가장 타당한 수습책임을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했던 것이다.<sup>4)</sup>

무츠는 대신 당면과제인 철병을 접어놓고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청국을 도발해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구미 열강의 지지

로 줄여 씀).

이 *Krasny Archiv*는 최근 일문으로 잘 정리되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자료집으로 출판되어 있다. 佐佐木揚 編譯, 《一九世紀末におけるロシアと中國：クラスノイ・アルヒーフ所收史料より》アジア史資料叢刊 第1輯(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東京：巖南堂, 1993).

2) 田保橋潔, 《日清戰役外交史の研究》(東京：東洋文庫, 1951・1965), 128쪽.

3) 朴宗根 著, 朴英宰 譯, 《清日戰爭과 朝鮮：外侵과 抵抗》(一潮閣, 1989), 30쪽.

4) 日本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27-2(東京：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192~200쪽.

를 얻기 위해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내세울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가 처음 제안한 것을 이토오가 상정함에 따라 6월 15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조선의 내정개혁 방침은 청일 양군이 조선의 농민군을 진압한 뒤에 양국 위원을 중심으로 조선의 근대적 제도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무츠는 일찍이 이 조선 내정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외교가 “일시에 피동자에서 주동자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5)</sup>

6월 21일 청국은 예상대로 일본의 공동 내정개혁 제의를 거부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 내정개혁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처럼 일본이 단독 내정개혁 방침에 입각해서 적극 외교를 펼치자 구미 열강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경우 서울 주재 공사 존 실(John M.B. Sill)은 영국·러시아·프랑스 외교 대표와 함께 청일 양국의 동시 철병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미국 국무성은 공식적으로 불개입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선 고종이 주미공사 李承壽에게 미국의 중재를 호소해 보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승수공사가 그레섬(Walter Q. Gresham)국무장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개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그레섬의 대답은 현상유지 정책이었다. 그레섬은 주미 일본공사 쿠리노 신이치로오(栗野愼一郎)에게 공정한 처분을 희망한다는 각서를 전달하는 한편, 실공사에게는 “조선에서의 평화 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는 전문을 보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따로 외교 훈령을 통해 “조선의 정치문제에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고 명시했던 것이다.<sup>6)</sup>

반면 러시아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6월 25일 주일 러시아공사 히트로보는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청국군이 철수한다면 일본군 역시 철수할 것인지를 타진했다. 주청 러시아공사 카시니도 청일 분쟁의 조정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위신을 제고할 기회이므로 대일 간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 카시니공사의 상신을 받은 러시아 외상 드 기르스(Michail

5) 陸奥宗光, 《蹇蹇錄》(岩波書店, 1940), 36쪽.

6) 金源模, 〈清日戰爭前後期 美國의 對極東政策이 日本의 韓國侵略에 끼친 影響〉(韓國史研究會 編, 《清日戰爭과 韓日關係》, 一潮閣, 1985), 163~164쪽.

Nikolaevich de Giers)는 훈령을 내려 히트로보공사로 하여금 30일 일본정부에 대해 “청국과의 동시 철병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일본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전달하게 했다.<sup>7)</sup>

그러나 7월 2일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것은 러시아정부도 익히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다. 강경책을 뒷받침할 힘의 준비가 문제였던 것이다. 이미 7월 1일에 러시아 육군상 반노프스키(Boris Petrovich Vannovsky)는 외상의 질문에 대해, 군사력 시위를 위해서는 대병력이 필요한데 파병을 실천에 옮기려면 우선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8)</sup>

또 히트로보공사가 드 기르스외상에게 낸 견해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었다. 즉 일본 국민은 현재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훈을 통해서만 각성시킬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일본 사회 전체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가 위신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 좋은 구실이 없는 한 비록 일본정부가 원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군대를 빼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했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중재를 포기하고 7월 13일 일본정부에 대해 회답 자체를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sup>9)</sup>

러시아에 이어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영국이었다. 7월 1일 주일 대리공사 페이젯(Ralph S. Paget)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하여 청국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런던에서도 김벌리(John W. Kimberley)외상이 별도로 주영 공사 아오키에게 청일 양국이 빠른 시일내에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 각국에 요청하여 연합 중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청국이 문제 삼는 것은 조선에 대한 명목적인 종주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 일본이 양보하면서 조선에서 실익을 얻는 편이 유리하리라는 충고였다.<sup>10)</sup>

김벌리외상의 판단의 근거는 조선이 청국의 종주권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한다면 러시아가 조선에 세력을 키울 기회가 증대하고 일본의 세력은 오히려

7) 《蹇蹇錄》, 62~63쪽.

8) 'Letter of Minister of War to Minister of Foreign Affairs'(July 1, 1894), *Krasny Archiv*, p.506.

9) 주일 공사 히트로보의 6월 13일 전보, *Krasny Archiv*, pp.497~498.

10) 《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641, 〈附屬文書〉.

려 쇠퇴하리라는 것, 따라서 일본은 공동 철병에 응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일본에 이로우리라는 전망이었다. 이는 조선이 청국의 보호국임을 묵인하고 그림으로써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고자 했던 종래의 영국 외교정책의 기초를 충실히 반영한 일종의 현상유지론이었다.

김벌리외상과 의견을 교환한 아오키공사는 나름대로 청국은 원산, 일본은 부산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조건을 내걸고 영국의 조정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본국 정부에 상신했다. 이토오수상은 러시아가 간섭할 경우 영국에 의뢰할 방침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토오는 조선의 오오토리공사에 대해서 과격한 조치를 회피하라고 명령하고 참모본부를 통해 오오시마 혼성 여단장에게도 마찬가지로의 내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외상 무츠의 견해는 달랐다. 일본정부가 영국의 중재에 응하는 데에 불만이였다. 그는 영국의 중재가 청국의 의외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는 영국의 제안을 수락은 하되 조건을 달았다. 즉 앞으로 조선에서 모든 정치상·통상상의 관계에서 일본이 청국과 동일한 지위로 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sup>11)</sup>

7월 7일 영국은 다시 프랑스·러시아·독일·미국정부에게 ‘공동간섭’을 지지하거나 참여할 것인지 타진했다. 그러나 이들 열강, 특히 미국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7월 13일 외상 김벌리는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열강의 연합 행동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다고 결론을 보고했다.<sup>12)</sup>

## 2) 강화 외교

6월 7일 스키무라로부터 일본군 파병 통고를 받은 조선정부는 즉각 일본군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주일공사 金思轍을 통해서도 일본정부에게 파병 방침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또한 6월 9일 참의

11) 이에 대해 청국은 ‘청국과 동등한’이 아니라 ‘타국과 동등한’ 권리로 수정 제안한 바 있다. 田保橋潔, 앞의 책, 242~243쪽.

12) Ian Nish, 〈清日戰爭과 英國〉(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清日戰爭의 再照明》,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6), 216쪽.

교섭통상사무 閤商鎬와 미국인 외무고문 르젠드르(Charles W. LeGendre, 李善得)를 인천으로 급파하여 오오토리공사가 대동하고 온 해군 육전대의 서울 진입을 막으려 했다. 이어서 6월 10일에도 협판 교섭 통상사무 李容植을 양화진으로 파견하여 일본군의 서울 진입을 막고자 했다. 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3일 조선정부는 다시 한번 <진주화약>을 이유로 위안스카이에게 청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청하고 14일에는 오오토리에게 일본 병력의 철수를 더욱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청일전쟁의 도발과 강화 외교의 전 과정에서 일본 외상 무츠에게는 일관되게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지배 내지 우월권의 확보였다. 중국과의 전쟁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일본이 견지하고 있던 대 조선 정책의 원칙과 기본을 보여주는 문서가 무츠가 기초한 <處韓方策四通>이다.<sup>13)</sup>

개전 초기에 이토오에게 제출한 이 문서에서 무츠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네 단계로 그 가능성을 나누었다. 첫째는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고 조선의 운명을 그 자신에게 일임하는 방안, 둘째는 명의만 독립국으로 하고 일본이 그것을 保翼扶持하는 방안, 셋째는 중국과 아울러 공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방안, 그리고 넷째는 조선을 일본이 주도하여 중립국으로 만드는 방안이었다.

둘째 방안은 말할 나위 없이 조선이 일본의 속국으로 되는 길이다. 셋째는 청과의 경쟁이 여의치 못할 경우, 이 시점까지 청이 조선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누려온 영향력을 대등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방책이다. 넷째 방안은 얼핏보면 열강의 각축을 벗어난 중립국 조선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최악의 경우에는 타 열강의 간섭을 배제시킨 채 조선에서의 일본의 간접적 지배를 꾀한 방책에 다름 아니다.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첫째 방안이야말로 1890년대의 시점으로서 가장 지능적이고 또 차원 높은 현실적 방책이랄 수 있다.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되 일본의 손으로 한다는 타율성과, 조선의 운명을 조선에 일임한다는 자율성의 강조는 자못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었다.

13) 伊藤博文, 《機密日清戰爭》(東京: 原書房, 1967), 27~33쪽.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선의 내정개혁이란 첫째, 개혁의 주체로서 또는 후원자로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 뿐 아니라 청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전쟁을 도발할 구실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실제로 응용되기도 하였다. 국제 사회에서도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정당성 홍보에 커다란 무기로 되어 사회진화론이 주도하던 서양 열강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내정개혁을 주창함으로써 무츠가 궁극적으로 노린 것은 일본의 지원과 사주를 받는 내정개혁파로 하여금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케 함으로써 결국은 조선에 대한 간접 통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젊은 개혁과 지도자인 박영효가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에 기울자, 그의 개혁 의지는 뒷전으로 돌리고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실만을 욕설과 함께 개탄하고 있는 일본 지도층의 자세에 이러한 속셈은 명백히 드러나 있다.<sup>14)</sup>

더욱이 일본은 조선이라는 한 나라의 개혁을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만한 구체적인 그림은 물론이려니와 자금도 입안되거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실상이었다. 오오토리의 후임으로 조선 내정개혁과 전쟁 도발을 책임지고 부임했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그 자금을 조달하러 토오쿄오의 재력가들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일은 이를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생생히 증언해 준다.<sup>15)</sup> 이노우에는 주지하다시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메이지 일본의 거물 정치인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 외교를 책임지고 시모노세키 강화회담까지 이토 오 히로부미와 시종 일관 보조를 맞추어 청국과 열강과의 교섭을 지휘하던 무츠는 조선에서의 일본의 목표가 이러한 개혁과는 결국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자신의 외교 회고록에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의 《蹇蹇錄》에는 청일 개전 직전 일본의 국내 여론에 대한 평가가 등장한다. 비록 재야의 ‘조기 개전론’ 또는 동학농민군에 대한 ‘기사도적인 의협론’에 대한 반어법으로서 이기는 하나 무츠는 냉정하고 현실주의적인 논리로 일본이 왜 조선의 ‘동

14) 宇野俊一, 《日清・日露：日本の歴史》(小學館, 1976), 107쪽.

15) W. G. Beasley, *Japanese Imperialism, 1894~1945*(Oxford Univ. Press, 1992), pp.51~52.

학란' 사태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조선에서의 전국 규모의 내란 발생과,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청국의 조선에 대한 전통적 영향력, 그리고 내란에서 증명된 조선의 근대화와 내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 플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연적인 조선에서의 청 세력의 축출과 전쟁 불사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츠의 이 《건건록》은 논리와 현실 감각을 겸비한 메이저시기의 대외 팽창론 중에서 으뜸가는 문서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무츠의 조선에서의 일본 이익과 지배권의 확립이라는 이 목표는 전쟁 수행 중에 현격히 확대된다. 전쟁의 종료를 위한 강화의 조건이 조선에서의 청 세력 배제라는 정치적 조건을 훌쩍 뛰어 넘어 중국의 영토를 빼앗는 일이 그 알맹이를 이루게 된다.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이라거나 전쟁 비용의 배상을 넘어 영토의 할양이 논의되었을 때 무츠의 의중에는 그나마 타이완과 평후(澎湖)열도 및 그 부속도서 이외에 중국 대륙에서의 영토 할양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랴오똥(遼東)반도의 할양도 제안은 되고 있었으나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전쟁 배상의 일부로서가 아니었다. 배상을 규정한 조항과는 별도의 조항, 즉 그 유명한 제1조 “청국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지방임을 확인”하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영토를 담보하겠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두어졌던 것이었다. 조선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타이완과는 달리 조·중 국경선상에 위치한 랴오똥의 할양은 어디까지나 전쟁 목표였던 “조선 독립을 위한” 하나의 ‘담보’로서 요구될 터였다. 시기적으로는 1894년 11월과 12월 사이였고 전쟁과 외교의 핵심 인물 무츠와 이토오 사이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즉 무츠의 글을 빌리자면 “랴오똥반도의 점령은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고 청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타이완의 할양은 “[전쟁 비용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다.<sup>17)</sup> 전쟁의 전반기까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희망과 논리를 제대로 반영

16) 《蹇蹇錄》 전반부의 개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로 이런 논리를 주장했다.

17) 《蹇蹇錄》의 1895년 초판본, 《陸奥宗光關係文書》, 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소장 마이크로 필름, #65~1.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전쟁이 후반으로 접어들고 일본군이 연전연승하고 랴오둥과 산둥지역으로의 확전과 정비레하면서 환골탈태하게 된다.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채기고 랴오둥은 타이완과 더불어 조선 독립을 보장하는 담보로써의 논리가 사라지고 ‘무조건 할양’의 대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할양 받고자 하는 랴오둥반도의 영역도 크게 확대되었다.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분에서라면 랴오둥반도 중에서도 중·한 국경선의 일부만 점령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될 터였다. 원래 무츠의 초안도 이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1895년 1월의 내각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된, 그리고 청국에 제시될 강화 조약의 초안은 랴오둥반도 거의 전체를 할양 대상으로 그려놓고 있었다.<sup>18)</sup>

따라서 전쟁 후반기 1895년부터의 일본 외교는 이 확대된 대청 강화조건을 실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개전 외교 때에 오오토리-이노우에 등 조선 주재 일본 대표들이 대조선·대청 교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억지 추진으로 말미암아 난관에 부딪친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전쟁 중에 이루어진 이러한 목표 팽창에 뒤따르는 외교에서도 과부하가 걸렸다. 무츠는 이러한 사태를 걱정하면서 예상은 하고 있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영토의 분할은 일본의 최종 요구가 되어 버렸고 이는 서양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반세기 동안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열강의 간섭은 당시의 제국주의 국제정치와 국제정세에 초보적인 지식만 갖춘 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를 미리 막아볼 양으로 일본 외교가 나름대로 취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의 할양이라는 강화조건을 강화 회담이 시작될 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지키는 일이었다. 1894년 12월에 무츠와 이토오 사이에 결정되고 이듬해 1월 각의에서 확정된 이 조건은 영토 할양을 본국과의 논의 없이 전권을 가지고 서명할 수 있을만한 청국의 사절과 회담이 열릴 때까지 외부에 특히 열강에 알려져서는 안 될 터였다.

18) 자세한 과정에 대하여는 朴英宰, 〈清日戰爭과 日本 外交: 遼東半島 割讓問題를 中心으로〉(《歷史學報》53·54합집, 1972), 151~176쪽 참조.

무츠와 외무성이 얼마나 긴장하여 이 조건의 누설 여부에 쏠려 있었는지는 1895년 1월 이후 회담이 열릴 3월까지 기간 동안의 《日本外交文書》와 《건건록》의 상당한 분량이 이 문제에 매달려 있는 데에도 잘 드러나 있다. 무츠는 한편으로는 열국 간섭의 꼬투리를 막기 위해 미리 강화조건을 공개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토오와의 협의 결과 일체를 비밀에 부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 무츠 스스로 이 원칙을 버리고 강화조건을 누설하였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만 하여도 리홍장의 중재 요청을 거절하였고 또 영국의 공동 중재 제의도 물리치는 등, 일본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청일 양국이 강화회담을 시작할 때쯤이 되면, 일본의 한반도 점령은 차라리 용인할 수 있을지언정 라오둥반도의 점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이 최신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일본은 주일 러시아공사에게 중국에서의 영토 분할이라는 강화 조건의 일부를 누설하였던 것이다.<sup>19)</sup>

한편 청은 1894년 6월 22일 조선에서 철병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조희를 접수하고서야 비로소 일본의 전쟁 도발 결심을 인식하게 되었다. 6월 25일경에는 청 조정은 현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 “입씨름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리홍장에게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sup>20)</sup> 7월에 들어서는 1일과 14일, 그리고 16일에 계속하여 리홍장에게 신속히 전쟁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청 조정의 임전 태세로의 방향 전환은 청 조정 내의 주전파의 영향이 컸다. 구앙쉬제(光緒帝)와 그의 스승인 戶部尙書 왕통허(翁同龢), 翰林院 侍讀學士 원탕시(文廷式), 禮部 右侍郎 지웨이(志銳) 등이었다. ‘띠땅(帝黨)’이라 불리고 있던 이들은 시타이허우(西太后)의 ‘허우땅(后黨)’과 암암리에 대립하고 있었다. 조선문제에 대해 띠땅은 주전을, 허우땅은 주화를 고집하고

19)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561은 무츠가 주일 러시아 공사에게, 문서번호 563에서는 러시아 주재 니시공사가 러시아 외상대리 쉬쉬킨에게 각각 발설한 것으로 기록.

20)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13, 1032件, 25쪽.

있었다. 그러나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실권은 허우땅이 장악하고 있었다.<sup>21)</sup>

이 허우땅의 대표적인 인물이 리홍장이었던 것이다. 비록 전쟁 준비를 지시받고는 있었지만 시타이허우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던 리홍장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관망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경거망동을 말고 조용히 관망토록” 지시하고 전쟁의 “꼬투리를 우리측이 만들지 않도록”<sup>22)</sup>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만국의 공통된 예다. 전쟁을 먼저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어느 누구든 파멸할 것”<sup>23)</sup>이라고 경고하였다.

리홍장의 이러한 대책은 전쟁이 발생하면 영국과 러시아가 간섭해 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리홍장은 6월 상순 티안쥘에서 영국공사 오코너에게 영국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공격을 저지해주도록 본국 정부에 요청하도록 부탁하였다. 영국 수상 김벌리(John W. Kimberley)는 영국 주재 일본공사 아오키 슈우조오(青木周藏)를 불러 “청일 양국의 충돌은 비국적이며 그것이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러시아의 개입만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개전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sup>24)</sup>라며 현실적 원칙론을 폈다.

토오쿄오 주재 영국공사 페이젯에게도 일본의 중국과의 전쟁은 위험한 일이며 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하고 특히 개항장에서 분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무역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리라는 점을 훈령을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하였다.<sup>25)</sup>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일단 중국에서의 영국의 위상에 손실을 두려워한 소극적인 자세를 전달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김벌리의 결론은 영국의 무력 개입은 없으리라는 것이었고 이는

21) 戚其章, 《甲午戰爭國際關係史》(北京:人民出版社, 1994), 146~161쪽.

22)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14, 제1169권, 38쪽.

23) 《李文忠公全書》, 電稿 16권, 25쪽.

24) June 23, 1894, “Kimberley to Paget”, Park Il-Keun ed., *Anglo-American and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Pusan, Korea: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Pusan National Univ., 1984), No.15, p.11.

25) June 12, 1894, “Kimberley to Paget”, Park Il-Keun ed., *Ibid.*, No.22, p.13.

바로 중국에 전달되었다.<sup>26)</sup>

이에 리홍장은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러시아 공사 카시니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러시아의 간섭을 촉구하기 위해 “영국은 이미 조정자를 원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일에 러시아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돌려 대었다. 카시니는 “러시아도 조선과 인접하고 있어 일본의 경거망동에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sup>27)</sup>며 일단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중재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첫째 1885년 비록 청·일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조선과의 밀약이 체결된 이후 장차 완공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조선과의 무역량이 증대할 것이며, 둘째 우수리 지방의 개발과 발전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고, 셋째로 태평양함대의 진출을 위해 조선의 효용도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8)</sup> 리홍장도 “일본은 영국을 러시아만큼 두려워하지 않는다”<sup>29)</sup>고 판단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자신이 전면에서 나서서 중재를 맡으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증강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sup>30)</sup> 러시아의 일본 주재 공사 히트로보는 “여러 가지 근거로써 관찰한 결과에 따르자면 몇몇 열강들은 오히려 우리가 극동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sup>31)</sup>고 했다. 일본도 절대로 조선을 점령할 뜻이 없다는 뜻을 알렸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장래의 행동 자유를 고려하여 간섭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1894년 7월 9일 카시니는 리홍장에게 러시아는 우의로서 일본의 철병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압박할 수는 없다고 통보했다.<sup>32)</sup>

이미 일본이 전쟁을 결심한 것을 알아차린 영국은 중재를 포기했다. 대신

26) 《中日戰爭資料彙編》7, 1894년 6월 30일, 〈露西亞亞洲司長備忘錄〉, 235~236쪽.

27) 《紅檀雜誌有關中國交涉史料選譯》(北京:三聯書店, 1957. 이 문서는 *Krasny Archiv*를 한역하여 중국에서 후에 발간한 것이다), 15쪽.

28) “The Importance of Korea to Russia”, *Novosti*(Jul. 28, 1894), Park Il-Keun ed., *op. cit.* No.89, p.129.

29) 《李文忠公全書》, 電稿 15권, 47쪽.

30) 《紅檀雜誌有關中國交涉史料選譯》(北京:三聯書店, 1957), 14쪽.

31) 위의 문서, 18쪽.

32) 《中日戰爭文獻彙編》7, 1894년 7월 1일, 문서번호 32 〈露西亞陸軍大臣(Vannovskii) 致外交大臣函〉, 241쪽(이 문서 또한 *Krasny Archiv*의 번역이다).

영국의 세력권인 상하이(上海)와 그 인근 지역에서는 전투를 벌이지 않을 것을 일본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었다. 7월 16일 영국과 일본은 <일영통상항해조약 및 부속의정서>를 조인함으로써 영국의 중재 역할은 이로써 일단 끝나게 된다.<sup>33)</sup>

영국과 러시아의 중재의 포기와 일본의 침략활동에 대한 불간섭 정책의 채택은 실질적으로 전 열강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무츠에 따르자면 미국은 “옛부터 우리 나라에 대해 우의가 가장 깊고 좋은 뜻을 가진 국가”로 여기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최근 행동에 대해 일관적인 지지를 표명해오고 있었다. 이를테면 1894년 7월 9일 조선과 청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아 미국은 일본에 대해 무미건조한 권고로써 적당히 사태를 넘겼다.<sup>34)</sup>

독일과 프랑스의 일본에 대한 권고도 청국의 의사를 대변한 것은 아니었다. 두 나라의 주일 공사는 무츠에게 “예전부터 청국이 지니고 있는 무지몽매함을 각성시키려면 어떤 대상이 일대 타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일본의 해석은 그 역할을 일본이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암시를 은연중 표현해 온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sup>35)</sup>

1894년 7월 20일 국제 간섭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자 오오토리는 조선정부에 두 개의 조회를 보낸다. 하나는 조선정부가 신속하게 청군이 철수하도록 요구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 조선 사이의 세 건의 통상장정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7월 23일 조선의 답변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일본은 이를 다시 구실로 삼아 최후 통첩을 보내고 같은 날 병력을 파견하여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고 대원군을 유인 협박하게 된다.

7월 25일 대원군은 일본의 위협하에 조선의 자주를 선포하고 청군의 철병

33) 다 아는 대로 1899년에 시행되는 이 조약은 영국의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일본의 관세율을 인상할 것을 골자로 하는, 근대 일본이 열강과 맺는 최초의 평등조약이었다(《蹇蹇錄》, 100~101쪽).

일영통상 항해조약 및 부속의정서에 관해서는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東京: 原書房, 1965), 143~152쪽.

34) 미국의 간섭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戴逸·楊東梁·華立, 《甲午戰爭與東亞政治》(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4), 133~140쪽 참조할 것.

35) 《蹇蹇錄》, 105쪽.

권한을 일본군에게 위임하였다. 동시에 중국 代辦 탕샤오이(唐紹儀)에게 중국과 조선간의 상무조약을 폐기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발표를 몇 시간 앞둔 이른 새벽 일본군은 아산만에서 중국 해군에게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의 발발을 막아보려는 청국의 외교적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청국은 일본과의 재차, 본격적으로 강화를 시도했다. 서양 열강을 개입시키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청국은 11월 20일 독일인 데트링(Gustav Dextring)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데트링은 티안진세관장이자 1885년 <티안진 조약> 체결 교섭 당시 리홍장과 동행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데트링과의 교섭을 거부했다. 일본은 계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점령지역을 더 확장한 뒤에 좀더 유리한 강화를 할 속셈이었다.<sup>36)</sup>

이에 대해 청정부는 앞서 살펴 본 대로 재무장관 대리 쟁인후안(張蔭桓)과 육군대장 샤오위린(邵友濂), 또 그들의 고문이자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포스터(J. W. Foster)를 강화 사절로 임명했다. 일본은 수상 이토오와 외상 무츠를 대표로 임명했다. 강화 장소는 일본의 주장대로 히로시마로 결정되었다.

당시 일본 지배층 내부의 강화조약에 대한 의견은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육군은 장래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랴오둥반도의 할양을 요구했고, 해군은 장차 남중국의 연안지역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남지나해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이완과 평후열도의 할양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黨과 여론 매체들도 중국 영토 분할안과 배상금 액수를 놓고 저마다 주장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정부의 각료들조차도, 이를테면 대장성 대신 마츠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는 배상금 10억 엔만 받고 영토에 대한 요구는 포기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앞으로의 전쟁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었다.大本營의 계획은 빼이징을 점령한 후 ‘프러시아-프랑스전쟁(普佛戰爭)’에서 승리한 프러시아처럼, 패전한 적국의 수도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토오는 그러한 강경 대책은 중국에서의 혁명적인 사태나 열강의 간섭을 유

36) 강화 교섭과 중재에 대해서는 박영재, <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와 淸日戰爭> (《淸日戰爭의 再照明》,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52~74쪽 참조.



발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승리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는 라오둥반도, 타이완, 평후열도의 조기 점령을 주장했고 제2군사령관 오오야마 이와오(大山巖)도 이에 동조했다. 전쟁의 장기화가 일본 경제에 파탄을 초래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단기 결전으로 조기 강화를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sup>37)</sup>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청국 대표단이 도착하기 직전에 대본영과 내각의 합동회의에서 강화 조약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그 골자는 첫째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 것, 둘째 라오둥반도, 타이완과 평후열도를 할양하고 일본의 군사비를 배상할 것, 셋째 구미 열강과 맺은 통상조약을 일본과도 체결할 것 등이었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표현은 물론 조선으로부터 청국의 세력을 일소하고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는 구실에 불과했다. 영토 할양의 요구는 육군과 해군의 주장이 모두 관철된 결과였다. 배상금으로는 전쟁에 소요된 총 경비와 장래의 타이완 진압 비용을 합친 경비의 2배에 달하는 총액 4억 5천 만 엔을 요구했다.

1895년 1월 30일 청국 대표단이 일본에 도착했다. 일본 대표단은 조약 초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대표단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트집을 잡아 귀국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동안 점령지를 확대함으로써 좀더 유리한 강화 조건을 실현시키자는 술책이자 청국의 실세를 불러오자는 계책이었다. 일본 해군은 1895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웨이하이웨이를 봉쇄한 다음 육군을 상륙시켜 2월 12일 함락시켰다.

청국은 사태의 급진전에 놀라 리홍장을 단장으로 한 새로운 강화회의 대표를 시모노세키(下關)로 파견했고, 고문으로 포스터를 대동했다. 포스터는 교섭 과정에서 청국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옹호했는데, 여기서 미국의 일본 지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의 국무성은 차치하고서도 중국에 있는 미합중국 공사 덴비(Charles Denby)를 포함한 미국인들은 거의 청국의 장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덴비 자신의 기록에 따르자면 청일전쟁은 전쟁의 초기에 강화 중재 따위로 종식시킬 것이 아니라 지속시킴으로써 중국을 세계와 화

37) 大江志乃夫, 앞의 책, 455~480쪽.

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연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지지가 뒷받침되는 주장이었다.<sup>38)</sup>

전투가 수도 뻘이징을 위협할 위기에 이른 시점, 주일 미국공사 던(Edwin Dun)은 국무장관 그레섬(Walter Q. Gresham)으로부터 미국이 중재에 나설 일에 대한 훈령을 받는다. 일본은 이때 좀 더 강력한 강화 전권 사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포스터가 리홍장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9)</sup> 전 국무장관으로서, 중국 총리아문의 고문이기도 하였다. 포스터의 개입을 알고는 무츠는 “개인적으로도 나의 친구로서 나는 그의 도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강화 교섭 과정에서 그는 음으로 양으로 일본의 이익을 많이 대변해주었기에 후일 일본정부의 치하까지 받았다.<sup>40)</sup>

1895년 3월 하순에 진행된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그때까지 점령하지 못한 티안진, 산하이구안(山海關), 타이꾸(太沽) 등지를 일본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수도 뻘이징의 목구멍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의 포기는 청국에게는 당연히 치수락할 수 없는 요구였다.

3월 24일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리홍장이 강화 교섭 중단과 전쟁 계속을 주장하던 배외주의 단체 소속의 일본 청년에게 저격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저격범은 재판에서 “일본군이 뻘이징 점령을 단념하는 것은 일본의 치욕이다. 청국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했다. 당황한 이토오는 이 사건이 열강, 특히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21일간(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휴전을 제안했다. 그 사이에 진행된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앞의 강화조약 초안을 제시하고 청국에게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4월 17일 결국 청국은 조약의 조인에 합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朴英宰〉

38) 미국은 영국에 이어 1894년 11월의 뤄쑤이 함락된 다음 날인 12일, 일본과 새로운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일간의 불평등조약 체제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39) 청일간 강화 교섭 과정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개입 사정에 관해서는 朴英宰, 〈清日戰爭과 美國〉(《歷史學報》59, 1973), 53~66쪽 참조.

40) 陳偉芳, 앞의 책, 221쪽.

## 5. 전쟁의 영향

### 1) 〈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전후의 동아시아

1895년 4월 17일 리홍장과 이토오는 청일 양국간의 9개월간에 걸친 전투를 마무리짓는 강화조약을 시모노세키에서 조인하였다. 패전국 청국의 일본에 대한 일방적 양보가 그 내용이었다.

제1조는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청국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전통적 한·중간 화이질서 관계의 범주를 폐지하였다. ‘천하’로서의 중국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華夷觀은 19세기 중반 아편전쟁과 난징(南京)조약에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형성된 근대적 국민국가관을 기반으로 하는 ‘조약체제’를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화이관 와해의 출발점이 이제 조선마저 떨어져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전통 세계의 기본 틀의 와해에까지 이른 것이다.<sup>1)</sup>

이제는 ‘중화’가 변방에 진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일본이라는 하나의 민족국가에게 졌다. 일본의 변혁 주체들은 이미 1850년대에 스스로의 ‘천하관’을 버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써 다른 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서양 제국과 대응했던 것이다.<sup>2)</sup> 일국 대 일국 민족주의라는 인식은 천하관이라는 세계관에서는 자리잡기 힘든 의식이다.

청초 17세기의 反滿洲의 한족 중심주의라는 민족주의가 전통적 세계에서 중국에서 소위 ‘정복왕조’가 탄생될 때마다 일어났던 순환적 의식이었다면 전후의 민족의식은 이제는 떠날 것이 다 떠난 홀로 남은 민족국가로서의 청나라—중국이었다. 공화주의운동과 더불어 중국의 역사에 처음으로 개조된

1) 이에 대해서는 崔熙在, 〈中華帝國秩序의 動搖〉(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편, 《講座 中國史 V : 中華帝國의 動搖》, 지식산업사, 1989)를 참조할 것.

2) Harry D. Harootunian, *Toward Restoration : The Growth of Political Consciousness in Tokugawa Japan*(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pp.380~391.

세계관이 자리잡는 계기이기도 할 것이다.<sup>3)</sup>

조선에서도 중화주의가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 이미 수구파와 개화파 또는 친청파와 친일·친러 심지어는 친미파라는, 이념에 입각하든 현실적 계산에 따르든, 다양한 대외관계의 갈래가 형성되어 있어 청나라 중국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가 중국의 그것을 압도한 사실이 눈앞에 증명됨으로써 지배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조선인들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에 대한 가능성을 더한층 믿게 되었다. 적어도 부국강병의 맥락에서는 그러하였다.

여기에 대외관계에 대한 명분과 실리에 입각한 검토가 당연히 시작되었다. 당시의 일본이란 가장 힘이 있으면서도 배우기가 쉬운 ‘모범’이나 ‘범례’로서의 대상일 수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19세기 말이란 온갖 외세와 그리고 전통적 중화 제국주의가 한반도에서 힘을 겨루고 있는 때였다. 이 시기란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일본이란 특정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경험을 가지기 이전의 시기이다. 모두가 외세가 될 수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방일 수 있었다.

이들테면 1880년대 초 주일 청국 공사관 서기관이었던 후앙쑤쑤언(黃遵憲)의 《朝鮮策略》이 제안했던 방안이란 것은 이러한 시각과도 연결된다. 어느 강국과 親하든 結하든 聯하든 그 대상은 청을 비롯한 조선을 둘러싼 강국들과 조선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의하고 설정하는 일이었다. 또 그 친소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이익이어야 했다. 따라서 1880년대 조선의 지배층을 동요시킨 후앙쑤쑤언의 책략이란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책략적 기술적 차원의 아이디어에 그친 문서로 불일은 아니다.<sup>4)</sup>

후앙쑤쑤언의 제안은 비록 청국과의 전통적 관계의 유지를 전제하고는 있지만 러시아를 막는 방도로써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신생 제국의

3) 민족의식의 형성과 관련된 미시적 논의로는 의화단운동의 구호 분석에 바탕한 천하관－淸朝관의 추이에 관한 小林一美, 〈義和團の民衆思想〉(《講座中國近現代史: 2 義和團運動》, 東京大, 1978) 참조.

4)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746~748쪽.

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다. 뒤집어 본다면 이 ‘책략’의 바닥에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조선의 생존을 위한 대외관계의 다양성과 가능성의 넓이가 잠복해 있다.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화이질서에서 떨어져 나간 1890년대의 조선이 하나의 민족 국가로써 근대적 민족국가간의 대외관계를 주체적으로 전개할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는 문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봉착한 舊 화이관적 세계질서의 붕괴와 민족주의적 제국주의의 신질서에의 편입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국제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진퇴유곡에 들어서게 하였다. 여기에 구 봉건적 왕조체제 또한 벗어나야 할 짐으로써 중압이 겹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대단히 난폭한 것이었다.

전쟁 중 조선의 조정에는 일본의 지원과 사주를 받는 친일 개혁파가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간섭의 효과를 눈으로 확인한 조선의 지배층은 러시아의 힘을 이용하려 하였다. 일본을 등에 업은 기존 세력과 러시아에 기대는 세력간의 충돌 사이에서 일본은 왕궁을 습격하고 후자의 상징인 명성황후를 끄적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일본은 손잡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막 움트기 시작한 반 외세적 민족주의의 운동은 반일을 기축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의 조정에 형성된 친러세력을 뽑아내기 위해 일본은 외교적 노력도 기울였다. 1896년에는 5월에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I. Waeber)와 일본공사 코무라 슈타로오(小村壽太郎)사이에 〈웨베르-코무라협정〉, 6월에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파견되어 외상 로바노프(A.B. Lobanov-Rostovskii)와 비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이 맺어졌다. 조선에서의 러·일 두 세력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평형을 이루게 된다.<sup>5)</sup> 그러나 이 안정적 대립·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5) 이어 1898년 4월에는 일본 외상 니시 토쿠지로오(西德二郎)와 주일 러시아 공사 로젠(Romanovich R. Rosen)이 〈니시-로젠 협정〉을 맺어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의 러-일 세력 균형을 안정되게 만든다. 이에 관해서는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政策: 특히 1898年 前後의 美·露의 進出을 中心으로》(一潮閣, 1979), 4~42쪽 참조.

이후 3~4년 동안 러시아가 조선에 군사고문을 들여보내고 월미도에 군함을 침입시키고 미국도 병력을 보내는가 하면, 제주도에는 프랑스함대가 침입하였다. 일본은 월미도와 인근 섬에 기지를 설치하는 등, 러일 전쟁 직전까지 군사적 대립은 첨예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조선에 대한 열강의 경제 이권 침탈도 노골화된다. 철도 금광 산림 전기 전신 등의 사업에 일·러·미·독·영·프랑스 거의 모든 열강이 손을 뻗었다.

민족자본은 와해되고 지배층은 외세의 침범이 되거나 부르주아적 민권운동 또는 의병 무장투쟁으로 나뉘었다. 농민들도 다시 각처에서 들고 일어났다. 1898년부터 1903년까지 함북 경흥에서 제주까지 근 50여 차례의 봉기가 기록된다. 반외세와 반봉건 투쟁이었다. 그러나 1904년 조선은 다시 국제전쟁의 터전이 되었다. 1904~5년의 러·일전쟁은 조선의 국운을 끊는 계기로 되고 전후 일본의 실질적인 식민지로 떨어진다.<sup>6)</sup>

전후 중국의 양상은 조금 달리 전개되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다른 서양 열강보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부국강병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흐름이 나타났다. 戊戌변법시 운동의 주동자인 Kang Youwei(康有爲)가 쿠앙쉬제에게 제출한 《日本變政考》에 나타나듯, 서양의 총체적·보편적 근대 역사상보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인접해 있는 일본의 경험을 본받을 것을 주장한다.<sup>7)</sup>

이 시점의 량치차오(梁啓超)의 경우 일본은 그에게 하나의 이상이였다. 뿐만 아니라 1911년의 신해혁명까지 이어질 혁명운동의 수뇌들 상당수는 일본에 유학 길에 올랐거나 또는 일본에서의 망명 생활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물론 중국인들이 패배를 딛고 향후 일본을 극복하자는 이른바 “상대와 나를 알지 못하면(不知彼不知己) 싸움마다 지게마련(每戰必殆)”이라는 쑨즈(孫子) 병법식의 새로운 대일관과<sup>8)</sup> 일본의 팽창주의자들이 이들을 도우면서 앞으로의

6) 이종현 편, 《근대조선역사》(일송정, 1988), 188~228쪽 참조.

7) 吳乃華, 〈甲午戰爭與康有爲民主觀的轉變〉(戚其章·王如繪 主編, 《甲午戰爭與近代中國和世界：甲午戰爭10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北京：人民出版社, 1995), 1025~1026쪽.

8) 王曉秋, 〈甲午戰爭前後中國人日本觀的轉變〉(戚其章·王如繪 主編, 위의 책), 1166쪽.

팽창에 이용하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움직였겠지만, 1890년대 후반 전쟁 이후 중국의 진보적 분위기는 움직일 수 없는 조류가 되어 있었다.

특히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으로 유학가는 중국학생의 숫자는 급격히 늘었다. 1902년에 500명이었던 것이 1904년에는 1천 500명으로, 1905년에는 8천 명, 이듬해 1906년에는 무려 1만 3천 명으로 늘게 된다.<sup>9)</sup>

러일전쟁은 다 알다시피 일본이 청일전쟁·삼국간섭 이후 10년 동안의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끝에 전 국력을 다해 치른 전쟁이었다. 물론 외교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 영·미 두 나라의 후원을 얻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은 황색인종들에게 서양인들의 동양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전쟁으로 비치는 국면도 있었다. 러일전쟁에서는 여러 모로 흥미로운 일화가 태어난다.

이를테면 전쟁중의 의연금 내역이다. 위문금 따위의 명목으로 일본인들이 낸 돈이 228만여 엔(현금 133만 엔과 물품으로 환산한 액수 95만 여 엔)이었다. 외국인들도 내었다. 모두 16만여 엔. 이 중 2만 4천 엔 정도가 영국과 미국인들의 출연이었다. 여기에 한국인이 1만 7천여 엔, 그리고 중국인이 낸 돈이 무려 11만 8천여 엔이나 되었다. 외국인 현금의 약 60%를 중국인들이 냈다는 것이다.<sup>10)</sup>

이른바 ‘서세동점’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1890대에 유럽에서 일었던 ‘황화론’이 거꾸로 된 인식으로서의 새로운 ‘역황화론’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도 러·일전쟁기간이었던 것이다. 청일전쟁이 중화주의와 화이질서의 붕괴,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에서 제국주의 세계속에서의 ‘민족주의’가 하나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게 했고, 일본의 승리는 이제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서양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에게 있어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 독립’을 청국으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한 시모노세키조약의 제1조는 물론 여러 번 강조했듯 일본

9) 이에 관한 총체적인 서술은 Marius B. Jansen, *The Japanese and Sun Yat-sen*(Stanford Univ. Press, 1970)을 참조할 것.

10) 櫻井忠溫 監修, 《國防大辭典》 및 《一億人の昭和史：日本の戦史-1：日清・日露戦争》(毎日新聞社, 1979), 185쪽에서 재인용.

의 조선 지배권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전리품이었다. 이 전쟁 20년 전, 메이지유신으로 출범한 지 불과 5년만에 일어난 조선 침략론, 이른바 ‘세이칸론(征韓論)’ 이래 근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심의 실현이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기간 동안 일본정부의 소위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정책은 청국과 구미열강의 동향을 항상 의식하면서 조선 ‘독립 待遇정책’에서 조선 ‘독립 公認化정책’을 거쳐 다시 이를 뒤집어 ‘조선 독립 공인화 부정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일본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근대적 중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하나 하나씩 획득하고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에 이른 것이다.<sup>11)</sup>

따라서 조선의 ‘독립’이란 일본이 어떤 빌미를 잡고서라도 청국과 전쟁을 일으켜 달성하고자 했던 이 전쟁의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의 목표였다. 따라서 이 외에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패전국으로부터 얻어 낸 아래의 이득이란 모두 일본의 전쟁 목표를 초과한 전리품이자 전쟁 중에 새로 태어난 과격한 요구들이기도 했다.

첫째, 청국은 일본에게 영토를 떼어 주기로 하였다. 랴오둥반도와 타이완 및 평후(澎湖) 섬들이었다.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한 반세기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랴오둥지역은 청의 수도 베이징을 뺀히 건너다보는 지형과 위치로, 마치 서울의 용진반도나 다름없는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다. 지난 반세기동안 중국을 팽창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영토의 할양만은 삼가 오던 열강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땅에 대한 요구였다. 이른바 ‘삼국간섭’을 불러온다.

둘째, 청국은 2억 냥[이하 모두 까오핑인(庫平銀)]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당시 청국정부의 1년 세입이 1억 냥 남짓했다.<sup>12)</sup>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 뿐 아니라 일본은 이 거금을 영국의 正金 파운드로 지불 받기로 했

11) 崔碩堯, 《日清戰爭への道程》(東京: 吉川弘文館, 1997), 204쪽.

12) 전쟁 전후의 청 재정 개황에 대해서는 梁義群, 〈甲午中日戰爭與晚清財政大變局〉(楊念群 主編, 《甲午百年祭: 多元視野下的中日戰爭》, 北京: 知識出版社, 1995), 52~76쪽을 참조할 것.



다. 열강들이 다투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일본 금융은 아직 여력이 없어 은본위제에 머물고 있던 터였다. 일본은 숙원이었던 금본위제로 진입할 수 있는 국제 금융적 기반을 얻은 것이다.<sup>13)</sup>

배상금 2억 냥에 추가하여 라오통반도를 되돌려주는 대가로 3천만 냥을 추가로 받았다. 기타 웨이하이웨이를 3년간 수비하는 비용으로 1백 5십만 냥 등 총 수입은 2억 3천 1백 5십만 냥,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3억 6천 7백여 만 엔에 달하는 액수였다.

배상금은 여러모로 긴요하게 배정되었다. 일본은 우선 전쟁 비용을 충당했다. 약 7천 9백만 엔을 보전했다. 그 다음 육군의 군비 확장에 5천 6백 7십만 엔, 해군의 군비 확장에 약 1억 4천만 엔을 부었다. 총 배상금의 반 이상을 실제로 이미 치른 전쟁 비용과 앞으로 치를 전쟁에 대비하는 데에 쓴 셈이다. 왜냐면 1893~4년의 방위비는 육·해군을 통틀어 1년 평균 2천만 엔을 넘지 않았다. 1893년의 경우 정부의 세수가 약 1억 1천 7십 7만 엔, 세출이 8천 4백 5십 8만 엔 정도였다. 당시 쌀 한 섬(코쿠 : 石)은 7엔이었다.<sup>14)</sup>

여기에 다시 전쟁 비용 복구 명목으로 교통과 통신 시설 확장에 약 3백만 엔을 들이고 전함과 어뢰정 구입에 3천만 엔을 추가로 투입했다. 일반 재정으로 1천 2백만 엔을 교부하고도 남는 돈을 교육 재정 기금으로 1천만 엔, 재해에 대비할 예비비로 1천만 엔, 또 제철소 건설을 위해 수십만 엔을 배정하는 등 여유있는 쓰임새였다.

배상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천황 황실 계정으로 2천만 엔을 배정한 사실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정치 발전 단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통치자금이나 정치자금의 용도로 해석될 수 있는 혐의가 짙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일반 재정 계정으로 돌린 1천 2백만 엔보다 8백만 엔이나 많은 액수를 황실 계정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천황제 절대주의적 체제가 확립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실증적 사례로

13) 전쟁 비용이나 배상금의 용도, 그리고 전쟁과 전비의 일본 경제에 미친 직접 영향 등은 Ono Giichi, *Expenditures of the Sino-Japanese War*(N.Y. : Oxford Univ. Press, 1922)를 참조할 것.

14) Ono Giichi, 위의 책, pp.94·281.

볼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타이완이라는 새로 획득한 식민지 건설 자금도 필요했다.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돈이 필요했지만 감옥을 지어 반항하는 타이완 원주민들을 묶어야 했다. 전쟁이 끝난 지 이듬해인 1896년부터 1903년까지의 통계를 예로 들면 타이완에 매년 투입된 예산은 군비에서, 일반 계정에서 심지어는 교육 재정 등에서 인출되었다. 매년 적게는 7백여 만 엔에서 많게는 1천 3백 여 만 엔, 평균 천만 엔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sup>16)</sup> 1903년까지 통계의 의미는 1902년이 되어서야, 다시 말해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타이완을 점령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서야 군사 진압 작전이 일단 종결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쟁 배상금은 크게 보아 첫째는 침략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앞으로의 전쟁에 대비한 군비를 증강하는 일, 둘째는 천황의 황실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일본 정치가 천황주의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질 것을 예고했다.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성되고 상승되는 광기에 가까운 반청 배외주의와 국수주의적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 본 대로이다. 청으로부터 받아 낸 거대한 전쟁 배상금과 랴오둥반도 반환 대상금은 이렇듯 일본 제국주의의 형성과 확립을 위한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의 하나로 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양쯔강(揚子江) 어구인 상하이, 쑤저우·항저우(蘇州·杭州)에서 충칭(重慶)에 이르는 창장(長江)유역과 후베이(湖北)지역 등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았다.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경제 침략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파고 들어 깊어지면서 청 왕조의 몰락과 중국의 반식민지화의 커다란 계기로 된 것이다. 상하이에서 충칭까지의 물길은 1천 5백 킬로미터의 길이에 천 톤 급의 배가 오르내릴 수 있다. 하류인 양쯔강을 포함하는 이 창장은 중국에서 가장 크고 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강일 뿐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서 물산이 가장 풍부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유역을 거느린다.

<시모노세키조약>과 뒤따르는 통상조약 그리고 열강에 대한 최혜국 특혜 규정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은 이내 일본과 열강들의 근대 자본주의 경제권에 급속히 편입된다.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 전후처리를 위한 청정부의 여러

15) 中塚明, 《日清戦争の研究》(東京: 青木書店, 1968) 참조.

16) Ono Giichi, 앞의 책, pp.146~148.

가지 개혁 정책도 3년 치의 세입을 몽땅 다 부어야 할 정도의 과도한 배상공 부담, 그리고 정부 정책과 기업들 사이의 정책적 차이와 현실 인식의 괴리 등으로 인해 쉬이 추진될 수가 없었다.<sup>17)</sup>

더욱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다투어 조차지를 요구하였다. 특히 ‘삼국간섭’으로 랴오둥반도가 반환되자 청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반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중국의 패배가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과거 중화세계의 변경에 처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멸시하던 일본에게 당한 사실은 중국인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메이지유신으로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와 양무운동으로 시작한 중국의 근대화가 비교된 것이다.

전쟁 후 여러 열강의 영토할양 요구에서 비롯된 ‘亡國’ ‘亡種’ ‘동아시아의 병夫’ 등의 자학적인 상징어로 나타나는 위기의식과 더불어 기존의 양무식 부국강병 노선은 파탄되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해 졌다. 종래의 ‘變法論’이 하나의 새로운 운동으로 전화될 소지가 여기에 마련된 것이다.<sup>18)</sup>

지역적으로 산둥지역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직접 전화에 휘말린 피해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부의 직접적 통치력이 아직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에게 유린된 이래 영국이 짜오쥔우(膠州)와 웨이하이웨이를 강점하였고 특히 짜오-쥔(膠-濟)철로의 건설은 운수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을 부른데다 줄줄이 들어오는 수입품으로 지방 농업과 수공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더 나아가 300여 선교사들이 천 개가 넘는 교회에서 벌이는 선교활동은 ‘民敎’의 갈등도 격화시켰다.<sup>19)</sup>

이와 같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와 전후의 국제적-국내적 모순, 그리고

17) 이 외에도 청정부의 배상공 조달문제 등에 대해서는 謝俊美, 〈再論中日甲午戰爭의賠款問題〉(張海鵬 主編, 《第二屆近百年中日關係史國際研究討論會論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5), 28~36쪽 참조.

18) 尹惠英, 〈變法運動과 立憲運動〉(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편, 《講座 中國史 VI: 改革과 革命》, 지식산업사, 1989), 12~13쪽.

19) 金培喆, 〈敎案과 義和團〉(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편, 《講座 中國史 VI: 改革과 革命》, 지식산업사, 1989), 68~69쪽.

사회 심리적 갈등은 이제 산둥지역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분해되고 생성되던 제 사회 계층으로 하여금 18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의 고장으로 만들었다. 이 지역이 의화단운동의 근원으로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북 중국을 중심으로 번져나간 이 운동은 전국적인 것으로 되어 청조 멸망의 한 계기로 된다.<sup>20)</sup>

## 2) 전쟁의 영향과 의의

청일 개전 당시 일본은 큰 승리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1890년 국회 개설 이래 시끄러워진 내정문제의 돌파구를 뚫고자 하는 계산도 있었지만, 전쟁의 목표는 ‘독립’ 조선에 대한 지배권 확립과 약간의 배상금 정도였다. 잇단 승전과 反淸 열기로 영토 점령으로까지 팽창된 무리한 강화조건, 특히 랴오둥반도의 할양은 열강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조약 조인 불과 일주일 뒤인 1895년 4월 23일, 랴오둥반도의 할양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제동을 걸어 왔다. 일본은 배상금을 얻어 받고 물러났다. 이른바 ‘삼국간섭’과 ‘랴오둥반도 還付’ 사건이었다.<sup>21)</sup>

이후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까지 10년간 일본은 ‘절치부심’ ‘와신상담’을 국론으로 삼았다. 청일전쟁 중에 이미 여물어진 ‘광적인 애국심’이 전쟁 직후의 국민적 적개심과 융합하여 제국주의의 심성을 다졌다. 당대 으뜸가는 계몽주의자이며 여론지도자였던 랴오둥반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전승

20) 미시적인 개관으로는 戚俊杰, 〈甲午戰爭期間的黃縣團練〉(戚其章·王如繪 主編, 앞의 책, 662~73쪽).

총체적 기술로는 李宏生·宋靑藍 主編, 〈山東通史: 近代卷 上冊〉(安作璋 主編, 《山東通史》,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95)를 참조할 것.

21) 이에 대한 서양 제국주의의 역학관계에서 분석한 표준적 참고로는 William 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2d ed.)(N.Y.: Knopf, 1951). 또 러시아 중심 서술로는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Causes of the Russo-Japanese War*(Berkeley: Univ of Calif. Press, 1958). 중국측의 해석으로는 楊遵道, 〈三國干涉還遼的實現及其影響〉(山東省歷史學會 編, 《甲午戰爭九十周年紀念論文集》, 濟南: 濟魯書社, 1986), 313~26쪽. 일본측의 당시 대응에 대해서는 陸奥宗光의 《蹇蹇錄》을 참조할 것.

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고”, 토쿠토미 소호오(徳富蘇峯)는 “삼국간섭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딴 사람이 되었다”고 술회했다. 1930년대의 국수주의는 한 세대 이전인 이때에 다져진 토양 위에서 쉽게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물질 토대와 정신적 토대를 일군 1895년은 따라서 일본의 근대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청일전쟁은 중국·일본·조선에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었다. 영국은 이 전쟁을 계기로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정책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었으며,<sup>22)</sup> 미국은 조선에 함대와 병력을 파견하는가 하면 강화교섭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sup>23)</sup>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간섭’이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각국의 지위는 물론 전쟁 당사국들의 장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19세기 말, 1890년대 일본의 침략행위는 조선과, 또는 청국과 일대일로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본의 침략정책은 제삼자인 서양 열강 세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간섭’을 받았던 것이다. 일국 대 일국의 침략과 전쟁 행위는 이미 국제적인 사태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역사의 세계사화의 과정에 들어 선 것이다.

패전 중국은 이 전쟁으로 20세기 전반 역사의 서막을 연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5년 뒤의 의화단운동은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배외 감정 반제국주의 감정이 민중 중심의 난동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이미 불이 지펴있던 공화·국민 혁명의 열기도 전쟁 이후 더욱 거세게 일었다. 마치 러일 전쟁 중에 일었던 러시아혁명운동 전야의 양상을 방불케 한다.

청국의 패전 원인은 일반적으로 봉건적 청정부의 부패와 무능, 군대의 부패와 제도적 전략적 미숙 등으로 치부된다.<sup>24)</sup>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분석 외

22) 영국은 전쟁 초기까지 청을 중시했고 일본의 실력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중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관측을 내리고 있었다. 鹿島守之助, 《日英外交史》(東京: 鹿島研究所, 1959), 154쪽.

23) 미국과 이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Jeffrey Dorwart, *The Pigtail War: American Involvement in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Amherst: Univ. of Mass. Press, 1975) 참조.

24) 李英 主編, 《中國戰爭通鑑》(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5), 765~766쪽.

에도 이 전쟁의 패전을 단순한 전쟁사의 주제를 넘어 역사의 패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있었다. 일본의 승리는 진보의 승리였으며 나아가 그 진보는 미국의 제독 페리(Mathew C. Perry)가 안내한 결과였다. 중국은 이제 절망적 상태일 뿐 아니라 그 몽매한 반 진보성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일본과 같은 손에 의해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한국은 일본의 지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들 부패 무능한 지도자들 손아래 영원히 깨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sup>25)</sup>

전쟁을 전쟁에 국한시켜 개전에서 종전까지 다루면서 단절된 시기의 역사로써 해석할 때의 전형적인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해석은 이미 일본이 이 전쟁을 ‘의전’으로 규정하고 서양 각국에 언론 홍보활동을 시작할 때의 논리와 다름없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19세기말의 역사를 연장해서 근대사 또는 근현대사 또는 현대사라는 시대구분적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가할 때는 전쟁의 승패만을 가지고 내리는 해석과는 달리 오히려 예리하고 공평한 해석에 도달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들테면 전쟁의 결과가 일본의 인민들에게 그리고 이웃 나라의 인민들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안으로는 일본이 근대적 혁신으로 국민국가 형성에 성공했으며 그 결과물의 하나로써 청일전쟁의 승리를 예시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국민적 에너지의 효율적 결집과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일본군의 편제나 작전도 정녕 그 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구성원인 일본의 ‘국민’은 곧 제국주의 제국의 ‘신민’으로 편제된다. 이 전쟁 이후 일본의 아이들은 목제 무라타 총을 장난감으로 삼게 된다. 군가가 동요를 대신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26)</sup>

바깥으로는 무엇보다도 일본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제 민족에 대해 ‘성실함’과 ‘검손함’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러한 도덕적인 문

25) 이를테면 Trumbull White, *The War in the East : Japan, China, and Corea* (Philadelphia & Chicago : J.H. Moore & Co., 1895), pp.671 ~ 673.

26) Stewart Lone, *Japan's First Modern War : Army and Society in the Conflict with China, 1894~1895* (London : St. Martin's Press, 1994), pp.186 ~ 187.

제에 멈추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50년간 끊임없는 전쟁과 전장으로 이 지역에 참화를 몰고 오는 시발점을 이 전쟁으로 인해 만들게 되었다는 점이다.<sup>27)</sup>

전쟁으로 인한 일본인들의 사회 경제적 고통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전쟁에서 이미 수만의 일본 젊은이들이 전사했고 중국의 군인 비전투원 수만이 죽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앞으로 50년 동안 연달아 닥쳐 올 전화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쟁에 이김으로써 번 돈은 그러나 거의가 다음 전쟁을 위한 군비 확장에 재투자되었다. 중국에서의 승리는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의 ‘의화단운동’때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연합군의 보조 역할, 이른바 ‘극동의 헌병’ 역할을 떠 안고 아시아에의 압박국으로 된다. 청일전쟁에서 보여준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sup>28)</sup>

많은 역사가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반식민지화가 가속되었다고 결론내린다. 그러나 다시 한번, 1890년대를 하나의 세기말적 기준으로 잘라 평가한다면 모를까 동아시아의 역사를 현재까지의 연속·단절의 문제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면 이 패전의 역사적 의미는 단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청일전쟁 후 5년 뒤의 의화단운동 뿐 아니라 이 전쟁 후 15년 뒤에 성공한 1911년의 국민혁명은 모두 역사의 단절이라기 보다는 연속적 의미가 강하다.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는 이 반 왕조 체제 혁명도 중국근대사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1919년대의 5·4 지적운동과 20~30년대의 민중운동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9세기 말, 아니 19세기 중반부터 중국 근대사의 핵심문제는 언제나 인구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인민문제와 제국주의의 침략문제라는 이중적 모순과 맞닿아있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청일전쟁 시기 중국의 인민이란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계층적·계급적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반 외세와 반봉건의 역사적 주체성을 지니는 ‘인민’으로 상당 기간 활성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들의 역사적 역할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평가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

27) 宇野俊一, 《日清・日露：日本の歴史》(小學館, 1976), 18~23쪽.

28) 中塚明, 앞의 책, 306~16쪽.

만 제도적으로는 1949년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실제적으로는 현재의 중국에 이르는 20세기 전반 중국과의 연속성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이른바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주체성을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신제국주의로 등장한 뒤로 1945년의 패전까지 일본은 반세기 동안 파죽지세의 팽창으로 '국위'를 선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미국과 차례로 전쟁을 치른 50년간,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주변국 인민들에게 가한 폭력은 물론, 일본 인민의 간단없는 고통과 희생은 핵 공습과 미군 점령으로 막을 내린다. 딱하게도 일본은 패전 후 또 하나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무엇이 일본의 바람직한 미래상인지 제시하지 못한 채 역사의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sup>29)</sup>

지난 100년간 일본 역사의 실상이 있었던 그대로의, 객관적인 해석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증거는 최근의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역사 교과서 해석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일본이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한다며 한반도에 자의로 파병하면서 <친진조약>이라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내세웠던 점이다. 동시대의 역사에는 같은 역사상이 고유명사만 바뀐 채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고유명사를 빼다면, 한반도의 내정에 외세가 국제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개입할 수 있는 전례는 1890년대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둘째, 일본은 청과 전쟁을 열기 위해서 한국의 근대화 즉 조선의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개혁파를 지원한답시고 명성황후 시해와 같은 유례없는 만행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논리를 같이 하는 한국인들이 서슴치 않고 일본을 도왔다. '근대화'를 지향하는 이념적 친일파였다. 이들에게는 그러나 민족 역사의 발전에는 민족적 주체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는 역사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고 '근대화'에 관한 한 그 으뜸가는 역사적 모범 사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알다시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다.

셋째, 일본은 '동학란'으로 어지러운 한국 민중에게 유포했듯 국제 사회에

29) 피터 두오스 著, 金容德 譯, 《日本近代史》(知識産業社, 1983), 제16장.



서도 이 전쟁을 절망적인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구해내는 ‘의로운 전쟁’으로 선전하며 친일적 여론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여론은 일본에 기울고 빼이징과 토오쿄오 주재 외교관들은 표면적으로는 국외 중립을 내세우면서도 청일간의 교섭과정에서 효과적인 후원자가 되었다.<sup>30)</sup> 이 전략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평화주의자도 동참했고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했다는 군부 주도의 역사 해석까지 동원되었다. 근대화된 역사학이 국제 정치에 이용되는 모습과 이때 형성된 언론 매체망의 국제화라는 현대적 모습이 실제 사례로 이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청일전쟁-시모노세키조약 당시 미국과 일본 두 신생 열강은 정녕 협조자였으나 이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국관계는 점점 악화된다는 사실이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새로운 제국주의 일본이 등장함과 거의 동시에 1898년 미국 또한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팽창주의자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하와이와 필리핀 한국 그리고 중국은 두 신생 팽창국의 공통된 목표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두 나라의 갈등은 미국이 하와이와 필리핀을 선점함으로써 본격화된다.

일찍이 청일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일본이 호주를 침공하리라는 소문이 국제 사회에 나돌았다.<sup>31)</sup> 일본은 일찍부터 필리핀과 하와이를 침공, 식민지로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sup>32)</sup> 미국이 남·북미 대륙을 벗어난 지역에서 지향했던 팽창의 목표지점과 동일했던 것이다. 19세기가 다 가기 전에 두 나라는 일단 자신의 영향권을 수립했고 러일전쟁 중에는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상호 이익범위를 확인했다. 바로 <태프트-카츠라 밀약>을 통해서다.

이후 수십년간 미·일 양국간에는 갈등과 협상이 교차했으나 중국문제,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문제, 미국 서부에서의 일본 이민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두 나라를 끝내는 태평양전쟁으로까지 몰고 가는 요인으로 된다. 이렇게 본다면 태평양전쟁과 전후 체제란 19세기말에 동아시아

30) 戚其章, 《甲午戰爭國際關係史》(北京:人民出版社, 1994), 96~97쪽.

31) Stewart Lone, 앞의 책, p.180.

32) 하와이에 관해서는 Hilary Conroy, *The Japanese Frontier in Hawaii, 1868~1898*(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53), 필리핀에 관해서는 Marius B. Jansen, 앞의 책을 참조할 것.

아·태평양지역에 등장한 두 신판창주의의 반세기 동안의 대립과 모순관계가 전쟁에 의해 해결된 그 결론에 다름 아닌 것이다. 청일전쟁이 그 시발점에 자리잡은 것이다.

한국을 둘러싸고 19세기말에 형성된 밑그림이 21세기에 접어드는 지금의 그것과 비교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으로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이다. 만약 피동·능동의 주체들이 고유명사만 바뀐 채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구조가 연속되고 있다면 당시의 한·일관계의 침략·피침략·지원·간섭의 구조적 틀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해석을 토대로 한 통시적이면서 동시에 공시적인 개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근대사의 해석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근대 한국사나 한·일관계사의 큰 줄기를 ‘침략과 저항’ 또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국의 근대사, 특히 1894~95년과 같은 결정적인 시기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구조적 모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직적으로는 조선사회의 누적적인 역사적 모순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1890년대의 현실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였던 농민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반제’와 ‘반봉건’이라는 종·횡의 축을 전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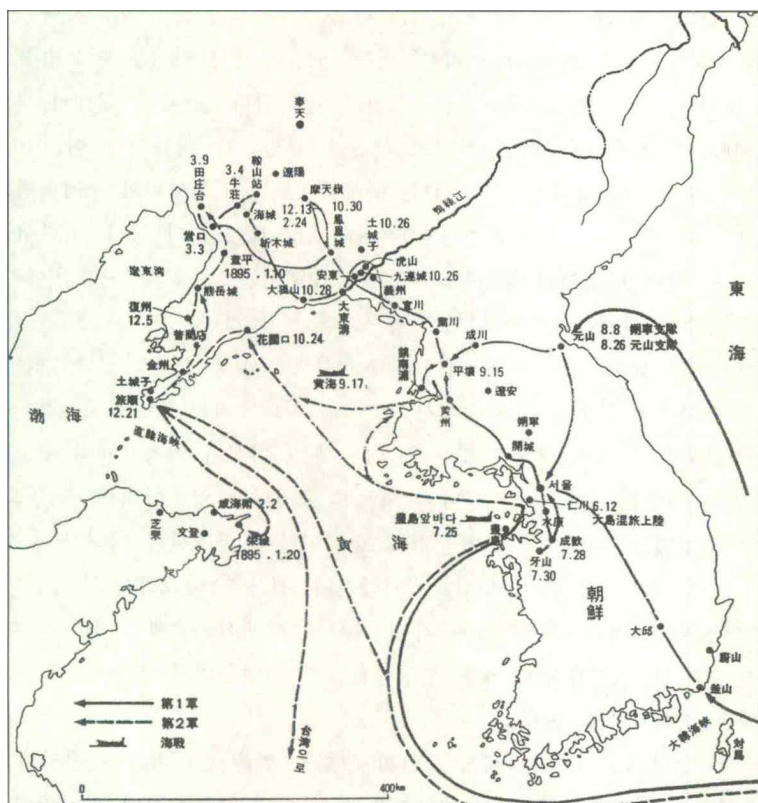
동아시아 근대에 있어서 이 시기는 총체적으로 보아 조선의 모든 인민이 와해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속에서, 상·하, 지배·피지배를 묻지 않고, 새로이 강요되는 인식과 세계를 맞아 사상과 행동, 나아가 인식체계의 구조 자체를 재편성하여 가는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움직임의 일구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침략 대 저항으로 단순 도식화시킨다거나, 일본과 비교하여 ‘민족에너지의 분열’로만 규정짓는다는 것은 각 민족사의 내재적·주체적 발전과 이에 반드시 소요되는 역사적 도정을 부정함으로써 패배주의적 역사관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청일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 개념을 재발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근대사적 의미의 ‘인민(people)’이라고 불리는 계층을 탄생시켰다. 같은 기간 조

선이 경험한 역사는 민족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인민’과 ‘국민’을 아우르는 분열된 역사상을 맺게 된다. 일본인들은 전쟁 이전에 이미 형성된 천황제 하의 ‘신민’으로써 20세기 중반을 맞는다. 패전 이후 이들 일본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민’으로부터 ‘시민’으로 변신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신민’ 시대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 잘라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은 빈약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朴英宰〉

일본군 침략 작전도



출전 : 《一億人の昭和史：日本の戦史-1：日露戦争》(毎日新聞社：1979), 22쪽을 편집.